



불교충지중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중단입니다.

충지중보

2011년 3월 3일

음력 1월 29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충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5년 제136호

전국사원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

국가의 안녕과 자손 위한 불공



▲ 충지사 교도가 49일 불공을 맞아 진호국가 불사를 하고 있다.

불교충지중은 2월 19일 전국 사원에서 충기 40년 상반기 49일 불공에 들어갔다.

서울 충지사(주교 선도원)에 모인 스승과 교도가 올해 처음 시작되는 49일 불공에 정성을 모았다.

이날 법회에는 선도원 주교, 화령 교육원장, 법경 밀교연구원, 록경 정사, 법수연 전수,

덕현 전수와 교도, 통리원 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록경정사의 집경으로 시작된 법회에서 법수연 전수는 49일 불공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원과 자녀 잡귀를 불공을 병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불공은 충지중의 특별기도 중의 하나이며, 충지중의 모든 스승과 교도가 일치 단결하여 49일 동

안 정진한다. 수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방해가 되는 장소의 출입을 삼가거나 시간을 지켜야 한다. 바쁜 일이 있어 정시불공 시간에 하지 못하면 저녁에라도 수행하는 것이 복덕을 쌓는 길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와 자성(自性)을 찾는 서원을 세우

는 것도 좋다.

〈진호국가불사〉의 진언은 “옴훤야호사”이다. 이 진언불사 출처는 종조 원정 대종사가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했다.

의례의 정립은 충기8년(1979년) 4월 26일 춘계강공회에서 제정되었지만, 이미 1975년부터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시행했었다. 내용은 나라발전,国泰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이 호국 불사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행한다. 또한 충기20년(1991년)부터 종령 특별 유시로 자녀가 잘 되고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자손 불공이 시작되었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4월 8일(양력)에 회향된다. 회향일의 의미는 부처님오신날이 음력 4월 8일이지만, 종단은 이를 양력으로 정했으므로 8일에 마친다.

〈박종환 기자〉

한국 불교 박람회 참가 예정

3월 17일~20일, 불교 충지중 홍보

불교 충지중 통리원은 종단의 대외적 홍보를 하기 위하여 올해로 6회를 맞는 한국불교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번 박람회는 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3월 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통리원은 불교의 각 종단이 참가하여 많은 불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관부서인 사회부 김태원 교무는 “불교 박람회를 통하여 충지중의 안내를 관념로 제작해 홍보의 컨셉트를 3가지로 나누어 주력했다”고 말했다.

먼저 진언홍보를 위하여 ‘옴마니반메훤’ 본존을 부스에 조성 한다. 서원당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본존과 양계만다라인 ‘금강계만다라’와 ‘태장계만다라’를 설치한다. 불자들에게 서원당이 법당의 형식과 같음을 알려주려 한다.

다른 종단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양계 만다라를 액자형태로 작게 만들어 가정에 놓을 수 있도록 판매 보급 할 예정이다. 밀교책자홍보를 위해서 ‘정통 밀교 불교충지중’,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이번에 출간된 화령정사의 ‘내 인생의 멘토 부다’를 판매비치할 예정이다. 종단 홍보로는 ‘정통 밀교 불교충지중’과 팜플렛, 육자진언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bm에서 제작한 종단촬영 소개비디오를 행사기간 동안 계속 방영 할 예정이다. 판매 제품은 예년과 달리 108염주, 열쇠고리 등 특색이 뒤떨어지는 것과 사경은 취급하지 않는다. 홍보관에 들린 불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다라퍼

즐과 눈에 띄는 크리스탈 다라니는 갖다 놓는다.

방문한 불자를 위해 경품행사를 하여 종단 이미지도 함께 심어 줄 예정이다.

충지중보 편집부에서는 불자들에게 경품 행사시 주소록 또는 방명록에 기재된 주소로 신문을 발송하여 부수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한국 불교 박람회 주최측인 불교신문과 제이 컨벤션에서는 대회 기간 중 주요사찰의 큰 스님의 법문과 불교 문화공연, 전통 문화공연을 부대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종풍운동(宗風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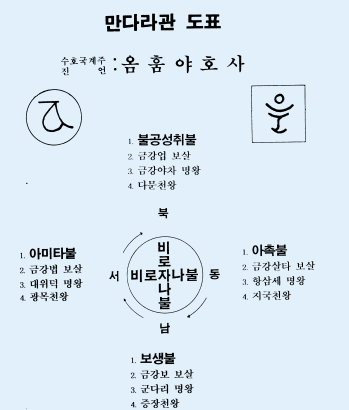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웅팽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종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진호국가 불사의례



▲ 만다라관 도표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경은 “정법을 흥포하고 좋은 정치로 나라를 다스리면 국민이 안락하고 국권이 튼튼하다”고 설하고 있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은 금강계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설해진 경 이므로 ‘바’자를 관

하는 것이다. ‘바’자는 금강계 대일여래의 진언인 ‘옴 바즈라 다투 뽀’ 가운데 진언의 말미에 있는 심진언(心眞言)이지만, 존명인 ‘바즈라 다투(Vajradhatu)’의 머릿글자를 나타낸다고 한다.

‘바’자를 관할 때는 <흰 빛 둥근 단(壇) 위에 바자가 있다>고 관한다. 즉 ‘바’자의 월륜관이다. 다음에는 ‘만다라관’을 한다.

만다라관은 오불(五佛), 사보살(四菩薩), 사대명왕(四大天王), 사대천왕(四大天王)을 관(觀)하는 의례이다. 이 경이 금강계만다라를 중심으로 설해진 내용이므로 수인(手印)도 대일여래의 지권인이자, 북쪽을 향해 금강결가를 하고 수호국계주진언 ‘옴훤야호사’를 염송한다.

동해중 제41회 졸업식 가져

“꿈과 희망을 위해 실력을 쌓자”



▲ 동해중 장재계 교장이 졸업생들에게 회교사를 했다.

불교 충지중의 학교법인 부산 동해중학교가 제41회 졸업식을 가졌다. 2월 9일 학교 해오름관에서 거행된 졸업식에는 의강

이사장, 장재계 교장, 대원 정각사 주교, 김일현 학교운영위원장, 문진수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희 학부모회장, 김무

남 개방이사, 박정선 개방감사, 김경숙 명륜2동장, 선생님과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의강 이사장은 치사에서 “성취 목표 세움, 적극적으로 긍정적사고, 감사하는 마음” 3가지를 내세우며 성공적이고 보람된 삶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성 통리원장의 축사를 대독한 대원 정각사 주교는 “부처님을 의지할 것과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자”고 격려했다.

장재계교장은 회교사에서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향해 미래와 희망에 맞는 알찬 실력을 쌓아가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답사에 나선 졸업생대표 송주현 학생회장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고마움과 교정을 떠나는 서운한 마음은 있

지만, 사회를 위하고 필요한 인재가 되어 학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불교충지중 장학회는 정재한, 이정훈, 장일영, 전재호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사장 상에는 도현운 학생, 학교장상에는 신동훈, 정지연, 박익진 학생이 각각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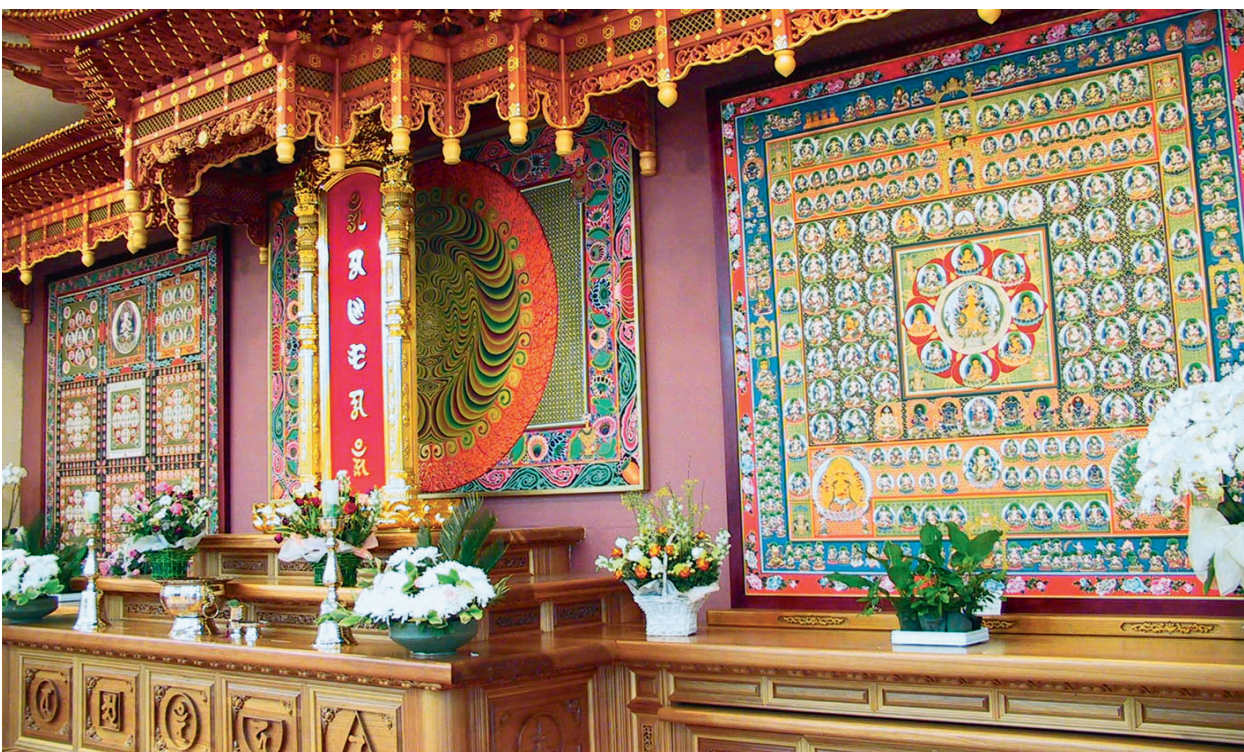
이번 졸업생은 198명이며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 133명과 진문계 65명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다. 한편 동해중학교는 1967년 개교했으며 신의, 성실, 창조의 교훈이래 21학급 550여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개교이래 졸업생 수는 16,700여명이며, 이진복 국회의원 이 총 동창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현오 경찰총장을 비롯하여 법조계, 경제계, 교수 등 계각층에서 졸업생들이 활약하고 있다.

종조법설

요행(僥倖)과 우연(偶然)은 본래(本來)없다.

사람들은 현재(現在)에 살면서도 미래(未來)에 관심이 크며 미래에 정신(精神)을 쏟고 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 산다. 행운(幸運)이 올지 성공할지 실패(失敗)할지 등 어찌될지 모른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짓고 있다. 그러나 또 자신이 지어 놓고도 자기가 모른다. 이는 불교적 인과원칙(因果原則)에서 볼 때 자기가 지은 인(因)을 망각했을 뿐이지 미래의 요행과 우연은 없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는 자신의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



충지중의 불단

중앙에 옴마니반메훤의 본존과 오른쪽은 종대팔엽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을 모시고 생명의 성장과 탄생을 의미하는 태장계만다라, 왼쪽은 아홉개의 작은 만다라로 1,461존의 보살을 모시고 부처의 경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 금강계만다라.

불교충지중은

보문총체총덕(普門總體總德)의 이불(理佛)이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의 주옥같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례(儀軌)와 사중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하여 유가삼밀 관행법으로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진언의 세계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즉신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교충지중
Buddhist Chongji Order

인선 총무부장 종단협 정기총회 참석

2010년 결산·감사보고 주요사업 결과와 현안문제 회의



▲인선 총무부장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인선 총무부장은 2월 25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제47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총무부장은 지성 통리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는 2010년도 결산의 건으로 감사보고와 주요사업 결과보고가 있었다.

회원 종단 신규 가입의 건으로 대한 불교정보종, 대한불교법연 중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종단협은 '민족문화 수호와 5대 결사운동' 등 참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불교계는 소외되고 지친 국민

에게 다가가지 못했음을 깊이 참회하며 새로운 변화와 쇄신의 시대를 맞이하자"고 말했다. 이어 "회원종단은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대중공사에 적극 지지와 동참을 천명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총화종, 보문종, 원효종, 일승종, 대각종, 일봉선 교종등 상임이사 종단을 비롯하여 총 26개 종단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회원종단의 협의기구이다.

민족문화 수호와 5대 결사운동

우리 민족 정체성의 하나인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 불교계 스스로 '자성과 쇄신'을 통한 실천행으로써 5대 결사운동을 전개할 것을 회원종단은 결의하는 바입니다.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6개 회원종단 일동은 "자성과 쇄신"으로 정법을 통한 사회구현에 앞장선다.
- 회원종단 모두는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국민과 함께 수호할 것이며, 5대 결사운동(수행결사, 문화결사, 생명결사, 나눔결사, 평화결사)로 전개 할 것이다.
- 각 회원 종단은 이 운동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서 회원 종단에 맞는 실천 활동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진행 할 것이다.
- 편향된 종교관과 왜곡된 민족문화 인식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 이전만 불자는 수행 정진 할 것이다.

불기 2555년 2월 25일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일동

4월 강공때 상장례 독송시연

각 교구회의 토의 후 최종안 마련

상, 장례 의식과 관련하여 장례 불공에 대한 기본설정과 시행방법 등의 기획안이 나왔다. 밀교연구소는 작년 정각사에서 있었던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 의식' 토론회 후 현재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3월 교구회의에서 각 스승들은 장례문화를 심의 있게 토의를 거친 후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통리원은 결과보고서를 취합하며, 밀교연구소는 검토 작업을 걸쳐 4월 춘계강공 때 개정된 최종안을 시연 할 예정이다. 밀교

연구소 법정정사는 "하루 빨리 상·장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된 장례의식으로 스승들이 교도의 장례에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연내용으로는 장례식장에서의 장례불공, 영안실 천도불공, 입관, 발인, 장지불공등으로 분류된다. 계승과 진언이 부분적으로 가미되며, 여산(魚山) = 염불식의 독송) 형식으로 독송법으로 불구(불발, 요령)을 시범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마니합창단 임원단 선출

단장에 박정희 교도

불교 총지종 서울·경인 교구 지회의 교도로 구성된 마니합창단은 2월 8일 투표를 실시하여 제4기합창단장을 뽑았다.

신임단장에는 박정희(총지사) 교도가 선출되었다. 박정희 단장은 "올해 총지종 합창문화제가 있으므로 단결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음성을 보시하도록 준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단원들이 재미있고 정겨운 합창단 생활을 위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운 임원진은 총무 손경옥(총지사) 교도, 회계 이타심(관성사) 교도, 의상담당 이주희(밀인사) 교도, 약보담당 최영혜(총지사) 교도가 구성되어 앞으로 2년간 마니합창단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한편, 총지종 합창문화제는 총기 40년을 맞아 전국의 3개 합창단이 11월에 한자리에 모여 합창공연을 선 보일 예정이다.

알림방

- ▶2월28일~3월 6일 : 3월 월초불공
- ▶3월 3일 : 동해중학교 입학식
- ▶3월15일 : 서울경인 지회 통신원 임원 선출
- ▶3월17일~20일 : 한국 불교 박물관 전시회
- ▶3월26일 : 총지문화답사 서울성곽 길 낙산 탐방



▲지성 통리원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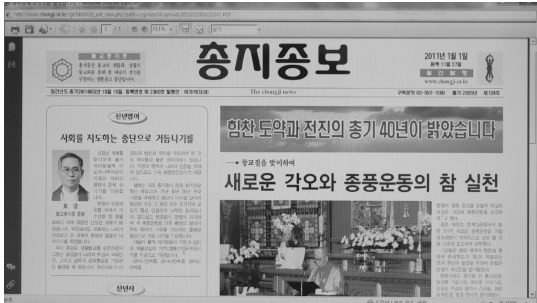
지성 통리원장 불교TV 이사회 참석

지성 통리원장은 2월 10일 불교TV(btm) 제72회 이사회에 참석했다. 안건에는 2011년도 예산승인의 건과 대표이사 선임의 건등이 있었다.

현재 불교TV 대표이사에는 성우스님(회장)이 되어있지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현 구본일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컴퓨터에서 종보와 다르마를 읽는다

홈페이지에 PDF화일로 연결해



총지종 홈페이지에서 종보와 다르마를 직접 읽을 수 있게끔

PDF화일로 만들었다. 그동안 홈페이지에서는 기사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져 찾아서 읽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체 기사가 실려지는 않고 종이 기사를 올려져 내가 읽어싶은 기사는 누락이 되기도 했다. 이

불교의 고향, 인도에서 부처님을 뵈고 오다

인도 네팔 불교성지순례, 지난 1월17일 ~ 1월28일

총지종의 스승과 교도가 지난 1월17~1월28일, 11박12일 일정으로 인도네팔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인도불교미술의 백치라 할 수 있는 아잔타석굴, 산치대탑을 비롯하여 인도 무굴제국의 고적지인 아그라의 타지마할과 아그라성, 불교성지인 바라나시의 사르나트를 비롯하여 붓다가야, 나란다, 왕사성, 베살리, 케사리아, 쿠시나가라, 사위성, 룸비니를 순례하였고, 마지막 일정으로 히말라야의 세계자연문화유산지인



자 휴양지인 포카라를 거쳐, 안나푸르나봉이 있는 사랑코타 전 망대를 탐방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사진은 성도지인 붓다가야의 마하보디사원에서 순례기념으로 찍은 것이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개천사	이희권	1/27	10,000
개천사	이희권	2/24	10,000
관성사	김봉기	2/23	10,000
관성사	박현숙	1/31	10,000
관성사	황성녀	1/31	10,000
관성사	권성수	2/25	10,000
국광사	김연조	2/8	20,000
기로	대 관	2/21	10,000
기로	대자행	2/21	10,000
기로	밀공정	2/21	10,000
기로	범수원	2/21	10,000
기로	범장화	2/21	10,000
기로	법지원	2/21	10,000
기로	불멸심	2/21	10,000
기로	사홍화	2/21	10,000
기로	상지화	2/21	10,000

기로	수중원	2/21	10,000
기로	총지화	2/21	10,000
기로원	경 관	2/18	10,000
기로원	대도행	2/18	10,000
단음사	경문지	1/28	10,000
단음사	경문지	2/24	10,000
단음사	경병순	1/28	10,000
단음사	경병순	2/24	10,000
단음사	법연지	2/17	10,000
단음사	천 공	2/7	4,000
덕화사	하순옥	2/24	5,000
만보사	정덕순	1/28	10,000
밀인사	김덕배	1/28	20,000
밀인사	묘심해	2/17	10,000
밀인사	무명씨	2/17	10,000
밀인사	원 당	2/17	10,000

밀인사	이연수	2/24	10,000
밀인사	이재갑	2/12	20,000
밀인사	이재호	2/7	10,000
밀인사	이혜성	1/26	20,000
밀인사	이혜성	2/22	20,000
밀인사	정정희	1/31	5,000
백월사	김현중	2/18	10,000
백월사	이갑진	2/25	10,000
백월사	진 평	2/17	5,000
법천사	김정숙	1/28	5,000
법천사	지 정	2/21	10,000
법천사	원만원	2/21	10,000
벽룡사	이종호	1/28	40,000
선립사	심지장	2/21	10,000
선립사	정복지	2/21	10,000
성화사	원배려	2/24	50,000

수인사	김봉기	1/27	10,000
수인사	장영택	2/1	50,000
실보사	이순옥	2/9	5,000
실보사	정법계	1/27	10,000
실보사	조순애	2/10	50,000
실보사	해 정	1/27	10,000
실지사	정경자	1/31	5,000
운천사	반아화	2/24	20,000
운천사	이성미	2/8	50,000
자석사	CCH	2/23	10,000
정각사	구정희	2/24	20,000
정각사	박동휘	2/24	10,000
정각사	이정선	2/24	5,000
지인사	허성동	1/26	20,000
총지사	유성열	1/31	10,000
총지사	이인성	1/27	30,000

혜정사	무명씨	1/26	20,000
화음사	강순란	2/8	5,000
흥국사	지 정	2/22	20,000
	박말조	2/21	5,000
	서상렬	1/31	200,000
	신 바	2/15	100,000
	이형자	2/24	50,000
	이혜원	1/31	5,000
	임동수	2/24	30,000
	정우석	2/17	10,000
	최순전	2/25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계장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인도기행 3

불법 전파의 요람 바이살리와 라즈기르 옛날의 영화를 세월 속에 묻고

중앙교육원장 화 령

여행 5일차인 12월 10일 케사리아라는 곳에 들렀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다. 그런데 인도의 불교유적지의 대부분이 이처럼 모호한 점이 무척 많다. 케사리아의 발우탑도 규모는 상당히 컸지만 이곳이 정확하게 어떤 장소였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 처음으로 선전을 가르쳤던 알라라 칼라마와 쫓다가 라마쫓다 등을 만난 곳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입멸을 예언 하신 곳이라고도 한데 특히 전자의 설명은 그리 믿음이

굴도 하고 장소에 대한 고증도 하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어쨌든 이런저런 궁금한 것이 많아 미련이 남는 인도이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모호한 곳들을 좀 더 세밀히 살펴 보고 싶다.

최초의 비구니가 탄생 한 곳 바이살리 암바팔리의 망고 동산이 있던 곳

점심을 먹고 다음으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이살리였다. 옛날에는 이곳을 베살리라고 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상업이 매우 번창한 도시였다고 한다. 베살리, 즉 바이살리는 릿차비 족이 세운 밋지 국의 수도였는데 릿차

부조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 여기에 있는 스투파는 원숭이가 꿀을 따다 바친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원왕봉밀지, 즉 원숭이 왕이 꿀을 따서 바친 곳이라고 한. 또 여기에는 원숭이 못도 있는데 이것은 원숭이가 부처님께서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꿀을 파서 바친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작은 연못이었으나 여러 왕조를 지나면서 보강되었다고 하는데 매우 좋은 돌로 주위를 쌓아서 보기가 좋다. 근처에는 많은 외국 순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기도를 하거나 염불을 하고 있었는데 무척 진지해서 경건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이곳은 또한 암바팔리가 출가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암바팔리는 궁중의 댄서 출신으로서 이름난 유녀이기도 했다. 릿차비 족의 귀족들이 암바팔리보다 먼저 부처님을 모시고자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먼저 약속한 암바팔리의 청대로 그녀에게 공양의 우선권을 준 이야기는 유명하다.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계급의 어떠한 사람도 평등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암바팔리는 나중에 출가하여 높은 경지에 올랐으며 “나의 노래는 숲속의 새처럼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갈라지고 윈 소리가 나네. 하지만 내말은 진실하다네”라고 하는 계승이 지금도 전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로 가시는 도중에도 이곳 암바팔리 동산에 들러서 설법을 하셨다고 한다. 암바팔리 동산은 암바팔리가 부처님께 공양한 망고나무 동산이었는데 마지막 설법을 이곳에서 하신 것이다. 여다가 정확히 암바팔리 동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근처 어디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 역시 바이살리에 있는 곳으로서 부처님 사리탑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부처님 성체를 화장한 후 릿차비 족이 얻어간 사리를 모셨던 탑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둥근 지붕을 덮어 놓았다. 부처님 사리는 화장 직후 팔등분 하여 각 나라와 부족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는데 릿차비 족도 그 중의 일부를 얻어 이곳에 사리탑을 세웠다고 한다. 1958년도에 돌로 된 사리함을 열어 보았을 때는 재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구슬 두 개와 황금 잎사귀, 동전 등이 함께 발견되었으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파트나 박물관에 있다고 했다.

이곳은 또한 유마거사의 집터라고 가이드

영취산과 죽림정사로 유명한 라즈기르

마가다의 수도 왕사성— 술한 불교의 전설이 서린 곳

순례 6일차인 12월 11일 토요일에는 라즈기르에 있는 불적들을 돌아보았다. 라즈기르는 옛날에는 라즈그리하라고 하였으며 왕이 거주하는 곳이란 의미가 있어 한문으로는 왕사성이라고 한다. 경전의 무대로서 수도 없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 왕사성이라고 불렀던 러즈기르이다.

라즈기르는 다섯 개의 산이 둘러 싸인 분지로서 부처님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인 마가다의 수도였다. 그 당시 마가다의 왕은 빔비사라로서 부처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이곳에서 탁발을 다니실 때 빔비사라왕이 그 의젓한 풍모에 반해서 나라의 절반을 줄테니 같이 손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자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는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큰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했으므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다. 이에 빔비사라왕은 무척 아쉬워하면서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시거든 꼭 자기를 찾아와 설법을 들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경전에 실려 있다. 라즈기르에는 또한 빔비사라왕이 보시한 최초의 정사인 죽림정사가 있다. 그리고 이곳은 부처님께서 입멸을 예언하시고 쿠시나가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신 출발지이기도 하다. 또한 부처님이 입멸하시고 처음으로 경전의 결집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이곳 라즈기르는 불교의 역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을 꼽으라면 역시 죽림정사와 영취산일 것이다. 우리는 먼저 영취산에 가기로 했다. 영취산은 분지의 동남쪽 비탈에 있었는데 영취산 아래에 도착



▲ 영취산 독수리 바위, 독수리가 막 날아오르려는 모습이다.

영취산 산정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년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넓혀져 있었는데 그다지 보기가 좋지 않다. 예전에 왔을 때는 그나마 오정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다. 더구나 올라가는 왼쪽 편으로는 일본불교에서 일찍부터 절을 짓고 산에 기둥을 세우고는 리프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아주 흉물스럽다. 일본의 어떤 특정 종파에서 세운 것인데 어디서나 발 빠른 일본인들의 행보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 올라가는 도중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면서 수행했다는 동굴도 볼 수 있었고 빔비사라왕이 부처님을 뵈러 왔을 때 수레를 세웠던 곳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티벳 불교도들이 걸어 놓은 오색 깃발도 보였다.

영취산의 산정에는 마치 독수리가 막 날아오르려는 듯한 모양을 한 바위가 있는데 영취산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영취산이라고 잘못 읽는 사람들도 많은데 영취의 ‘취’자는 분명히 독수리 ‘鷲(鷲)’이다. 영취산은 또한 법화경 설법의 무대이기도 하다. 법화경 서품에 보면 1200명의 비구들이 여기에 모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120명도 모이기 어려운 자리이다.

10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에 보시함을 놓고 총 든 군인 2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영취산의 독수리 바위 옆에는 시멘트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바짝 올려놓아 놓아 독수리 바위의 운치가 없어졌다. 불심이 없는 인도인들이 불교 유적에 손을 댄답시고 해 놓은 것이 모두 이렇게 조악해져 버린다. 차라리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성 싶다.

이런 불쌍 사나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2500여년 전에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왕사성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기시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설법도 하시던 광경을 역지로 떠 올려 보면서 산정을 내려 왔다. 지금은 키 작은 잡목으로 덮여져 아무도 살지 않는 골짜기이지만 저 아래가 그 옛날 번성했던 왕사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 대림정사에서

가지 않는다. 시시한 외도 스승을 만난 것을 기념하여 이런 큰 탑을 세웠을 리는 없고 부처님과 아난다가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혹은 춘다의 공양을 받으셨던 곳은 아닌지? 설명이 없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열반을 예언하시고 쿠시나가라로 가는 도중에 이 탑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열반과 관계가 있는 무슨 장소인 것 같다. 귀국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지만 이 발우탑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 나중에 인도에서 나온 어떤 안내책자를 보니 이름이 ‘케사리아 불교탑’이라고 되어 있고 인도의 5대 성왕의 하나이며 불교도였던 벤차카르바르티라는 왕이 원래 불탑이 있었던 자리에 7세기 경에 이렇게 큰 탑을 세웠다고 한다. 우리가 가서 본 것은 안내서에 나온 사진보다 훨씬 더 허물어져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급속히 파괴된 것이다. 불교 유적지가 이렇게 방치되어 허물어지고 있다니 가슴 아픈 일이다.

인도가 힌두 국가이다 보니 인도의 불교유적지는 이처럼 대체로 관리가 잘 안되고 불분명한 곳이 많다. 아쇼카왕 석주처럼 뚜렷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막연한 추측밖에 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유적지의 설명도 불교 전문가가 쓴 것 같지 않아 수궁이 안가는 부분도 더러 있는데 전반적으로 불교유적지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도가 이런 데까지 신경 쓰려면 아직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의식주의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삶이 안정되었을 때 문화에도 눈을 돌리는 것인데 인도가 아직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손길을 뻗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여유가 있는 불교국가가 앞장서서 발

비 족은 세계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고 한다. 여기에는 불교 3대정사의 하나라는 대림정사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보드 가아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5년 뒤에 이곳 바이살리로 오셨다고 한다. 그 때 릿차비 족들은 수 많은 코끼리가 끄는 금으로 장식된 수레를 타고 부처님을 마중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바이살리의 아름다움을 여러 번 칭찬하셨으며 밋지 국의 건설함에 대하여 자주 칭찬하셨다. 빔비사라왕이 밋지국을 치려고 했을 때 밋지국 사람들의 단결력과 여러 가지 뛰어난 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침공을 멈추게 한 이야기가 경전에 있다.

또한 이곳은 이모이자 양모였던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와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등 석가족 여인들 500여 명이 귀의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부처님의 세 번에 걸친 거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황색 가사를 걸치고 출가를 간청하여 카필라바스투로부터 이곳까지 울면서 따라 왔다. 결국 아난다의 중재로 이들이 출가를 허락 받음으로서 최초의 비구니가 탄생되었던 것이다.

이 곳 대림 정사터에는 부처님의 사자상 석주가 높이 서 있고 스투파가 있다. 높이 11미터의 이 석주는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 장소를 기념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자상이 열반자인 쿠시나가라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자상이 매우 정교하고 실감나게 조각되어 있다. 석주에 아쇼카 왕의 조각이 새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세워진 석주의 하나로 본다고 안내판에 써 있었다.

또한 어느 땐가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시니 원숭이가 발우를 받아들고 꿀을 따서 바쳤다는 전설도 있고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토굴을 만들어 바쳤다고도 한다. 또 다른 불교 성지인 산치에 있는 대탑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 즐거운 여행길, 피로를 풀기 위하여 어깨를 두드려 주고 있다.

가 말해줬는데 현지의 안내판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아마 유마경에 유마거사가 이곳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바이살리 구경을 마치고 파트나를 지나 라즈기르로 이동했다. 파트나는 바이살리에서 60km 쯤 떨어져 있다. 파트나를 지나면 도중에 5.5km나 되는 마하트마 간디 다리가 있다. 파트나는 현재 비하르주의 주도이고 상당히 큰 상업도시이다. 넓디 넓은 갠지스 강에 놓여진 이 다리는 정말 길었다. 갠지스 강이 지금은 물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우기에는 정말 불만한 광경일 것이다. 차안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도 풍경을 내려다보며 감상하는 사이에 어느덧 라즈기르에 닿았다. 레지던시 호텔이라는데 여장을 풀었는데 호텔 앞쪽으로 영취산이 보이고 넓게 펼쳐진 들판도 한 눈에 들어왔다.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했는데 오늘 하루는 정말 길고도 짧은 느낌이 든다. 구경도 재미 있었고 차를 타고 오며 가는 도중에도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인도의 색다른 풍경들을 감상하느라 무척 긴 하루 같았는데도 시간은 금방 흘러 갔다.

하자 우리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매우 붐볐다. 각 나라에서 몰려든 참배객들과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에 정신이 없었다.



▲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했다는 동굴, 영취산의 중턱에 있다.



▲ 케사리아의 불탑, 굉장한 규모가 크지만 관리 소홀로 거의 허물어져 있다.

특 별 기 획 ● —미리 보는

『총지종 수행입문서』 “진언수행의 길”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밀교종단 총지종을 창종하시면서 종단의 교의(敎儀)로 삼으신 교상과 사상은 무엇이며, 종단의 의례서인 '불사법요'는 과연 어떤 경전을 근거로 하였을까? 총지종의 수행법과 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동안 각종 경계서(經軌書)를 찾아 그 근거를 밝히고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에 대한 내용 뿐만 불교와 밀교에 대한 기초지식을 담아서 책으로 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름하여『총지종 수행입문서 - 진언수행의 길』이다.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가 수년간 관련 경전과 자료들을 모아 발간준비작업을 해왔으며, 금반 5월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발간에 앞서 미리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목 차 -	
1. 불교란 무엇인가?	4) 서원당 예절
2. 밀교란 무엇인가?	5) 불공예절 *방석예절 *염송예절 *분향과 회사 예절
3. 수행이란?	6) 법회참석과 준비
4. 밀교의 수행체계	7) 법회에 입하는 마음자세
5. 한국 불교의 전래와 밀교의 역사	8) 응공처(공양처) 예절
6. 한국의 밀교승	14. 불사법요(육자의궤) 설명
1) 명랑법사(明朗法師)	1) 실천서원 (實踐誓願)
2) 혜통국사(惠通國師)	2) 금강정좌 (金剛正坐)
3) 밀본법사(密本法師)	*금강의 뜻 *금강정좌의 뜻
4) 그외의 밀교승	3) 금강합장 (金剛合掌)
7. 한국의 밀교종파	4) 대비로자나불전호념
8. 한국밀교의 중흥	5) 한화 및 훈향전공
1) 광복후의 시대상황	6) 참회서원 (懺悔誓願)
2) 한국밀교의 중흥조 - 원정 대성사	7) 오대서원 (五大誓願)
9.『총지종』의 창종	8) ‘탐’ 자관과 대삼매인 * ‘탐’ 자를 관하는 법 * ‘탐’ 자를 관찰때의 호흡 * ‘탐’ 자를 관찰때의 수인 *참고 : 인계와 수인, 계인, 결인 *참고 : 손모양과 자세에 대한 논란
10. 총지종의 교상(敎相)	9) 금강권
1) 중심 교리	10) 정법계 진언 ‘옴람’
2) 주존 - 법신 비로자나불	11) 호신진언 ‘옴치림’
3) 본존 - 관세음보살	12)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훎’ *육자진언의 의미 *육자진언을 설한 경전 *육자진언의 지송공덕 *육자진언의 서사공덕 *육자진언 염송과 관상법 *육자진언을 외우는 뜻
4) 준제진언	13) 준제진언 (準提眞言) *준제진언의 의미 *준제진언을 설한 경전 *준제진언의 공덕 *준제진언의 염송과 관상법 *준제진언과 가지토
5) 삼밀수행 *참고 : 유가 *참고 : 유가삼밀	14) 대륜일자주 (大輪一字呪)
11. 총지종의 소의경전 및 교전	15) 광명진언 (光明眞言) *광명진언의 의미 *광명진언을 설한 경전 *광명진언과 수인 *광명진언의 공덕 *광명진언과 가지토
1)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 [대일경]	16) 흡자오인
2) 금강정경	17) 십선회향 (十善廻向)
3) 대승장엄보왕경	18) 회향서원 (廻向誓願)
4)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19) 천수경 (千手經)
5) 현밀일통성불삼요집	20) 반야심경 (般若心經)
6) 불교총전	
7) 밀교장경	
8) 종조법설집	
9) 불사법요집	
10) 정통 밀교기초문답	
11)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12) 밀교사상사개론	
12. 총지종의 사상(事相)	15. 육자의궤 염송의 실제
1) 교도	
2) 서원당	
3) 도량 *참고 : 도량명칭제정	
4) 본존	
5) 불단	
6) 단집	16. 진언지송방법(염송법) *진언염송의 종류 *진언염송과 염주 · 시간 · 횟수 *진언염송과 시기(時期) *염송 전의 ‘탐’ 자관 *개인정송시의 염송방법 *염송시 주의사항 *염송의 실제(實際)
7) 만다라	
① 만다라의 의미	
② 태장계 만다라	
③ 금강계만다라	
8) 법구	
① 염주	
② 죽비	
③ 향로	
④ 화병	
⑤ 촛대	
9) 법의 *참고 : 총지종 법의 금가사의 상징과 의미	
10) 회사고	
11) 가정본존 (가정다라니) *가정본존 봉안시 유의사항94	
12) 호신다라니	
13. 사원 예절	19. 반포법시
1) 합장례	
2) 호칭 예절	
3) 경내에서의 예절	

- 2) 정시 · 차시
- 3) 유상회사 · 무상회사
- 4) 십일회사 · 십이회사
- 5) 단시 · 반포법시 · 보은시
- 6) 회사십고법(喜捨心告法), 성불서원(成佛誓願)

- 22. 회향과 대중공양법
- 23. 불공

- 24. 각종 불공 (불공의 종류)
 - 1) 시간 · 일정에 따른 연중불공
 - ① 일일정송불공(一日定誦佛供)
 - ② 사분정진불공(四分精進佛供)
 - ③ 자성일 불공 (自性日 佛供)
 - ④ 월초불공 (月初佛供)
 - * 월초불공 잘 지키는 법
 - ⑤ 새해불공
 - ⑥ 49일 상 ·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 * 진호국가불사의궤
 - 가)수호국계주다라니경 소개
 - 나)금강결가
 - 다)바자관
 - 라)만다라관
 - ㉠오불(五佛)
 - ㉡사보살(四菩薩)
 - ㉢사대명왕(四大明王)
 - ㉣사대천왕(四大天王)
 - 마)지관인과 수호국계주진언
 - *참고 : 지관인 경전자료
 - ⑦ 종조탄신일 봉축불사
 - ⑧ 종조월도절 추신불사
 - ⑨ 창교절 봉축불사

- 2) 내용 · 성격에 따른 불공
 - ① 개인불공
 - ② 대중불공
 - ③ 동참불공
 - *동참불공의 의미
 - ④ 영식전도불공
 - ⑤ 전택불공(가정불공)
 - ⑥ 기제불공
 - ⑦ 조상불공 · 자녀불공
 - ⑧ 허물불공 [참회불공]
 - ⑨ 기타
 - *사원헌공불사(寺院獻供佛事)
 - *불단이설불사(佛壇移設佛事)
 - *본존봉안(이안)불사 (本尊奉安移安佛事)
 - *고결불사(告訣佛事)

- 3) 자성일이나 불공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4) 결과내증 정진불공법 (結果內證 精進佛供法)
- 25. 당체법문과 불공
 - 1) 당체법문 (當體法門)
 - 2) 정진불공 (精進佛供)

- 26. 종단기념일과 연중행사
 - 1) 종단 기념일과 연중행사
 - 2) 국가공휴일 불사
 - *성도절(成道節)을 양력 12월24일로 정한 이유
 - *성도절에 대한 고증 : 성도절을 12월24일로 정한 근거
 - *불타의 성도절 일정
 - *성도절을 12월24일로 정한 의의
 - *해탈절(解脫節) 불사
 - *수륙대제(水陸大齋) 행사

- 27. 우리나라 호국불교의 역사
 - 1) 호국신앙
 - 2) 신라 진흥왕대의 해탈법사
 - 3) 신라 진평왕대의 원광법사
 - 4) 신라 선덕여왕대의 자장율사
 - 5) 신라 문무왕대 명랑법사
 - 6) 문무왕의 불법수호(佛法守護)와 호국정신
 - 7) 고려 왕건의 건국이념
 - 8) 고려 대장경
 - 9) 조선의 선승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 10) 총지종의 진호국가불공법 실시
 - 11) 국난극복기원대법회

- 28. 기 타
 - 1) 관정수계 (灌頂受戒)
 - 2) 성불서원 (成佛誓願)
 - 3) 성불탑 (成佛塔)
 - 4) 원상 (圓相)

- 5) 육합상 (六合相)
- 6)예불가(禮佛歌)
- 7)투명단중법(投名壇中法)
- 8)연등회(燃燈會)
- 9)자성학교(自性學校)
- 10)오세대 제도(五世帶 濟度)

- 부록 : 밀교의 경전
 - 1) 초기밀교경전
 - 2) 중기밀교경전
 - 3) 후기밀교경전

여기에 소개한 목차가 금반에 발간될 총지종 수행입문서의 내용들이다. 전반부는 불교와 밀교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를 비롯하여 밀교의 수행체계, 한국불교와 밀교의 역사 등 일반 불교와 밀교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그다음은 한국 밀교와 총지종의 창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중반부는 총지종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교리와 주불, 본존, 수행법, 사원 안내, 소의경전과 교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사원에서의 예절을 다루어서 바른 수행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중반부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총지종의 불사의궤’에 대한 소개이다.

이 내용은 불사법요의 중심축으로서 본 책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불사의궤에 대한 경전상의 근거와 의미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현재 신규 스승과 종무원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 내용이 진언염송법과 염송법의 실제(實際)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총지종의 화도방편(化度方便)이라 할 수 있는 ‘준제진언에 의한 사중수법(四種修法)’과 총지종 특유의 보시법인 ‘강도발원 및 강도회사’ ‘반포법시’ ‘보은시’ ‘회사법’을 소개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불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용은 ‘회향과 대중공양법’ ‘각종 불공법’ ‘당체법문과 불공’ ‘종단기념일과 연중행사’ 등이다.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나라의 호국불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부록으로 밀교의 경전을 소개하고 있다.

입문서가 발간되면, 신규 스승과 종무원 교육 뿐만 아니라 기존 교도들을 상대로 강좌를 개설하고 일선사원에서 설법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총지종의 중도와 일반불자들에게 수행의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스승의 사명(使命)

스승은 매일 교도(敎徒)와 접촉하는 교화(敎化)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명이 중차대(重大)하고 따라서 종단(宗團)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스승은 세간고락(世間苦樂)에 초연하여야 하며 먼저 자기의 인생관이 확립되고 그러한 지표로서 생활하는데 그 스승의 인격이 완성되고 따라서 이혜(利害)의 영욕(榮辱)에도 굴복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지조 있고 정의에 투철한 모범적인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교도들은 그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함으로써 복전(福田)이 될 것이요, 일반이 흠모하여 교화는 날마다 흥왕하고 부처님과 일체(一切)중생이 다 가호할 것이다. 세속 사람들이라도 수양있는 지성인이자라면 인생관이 서있고 생의 가치를 확립코자 하거늘 하물며 중생을 제도(濟度)하는 성직자(聖職者)로서 이러한 주관이 없이 어찌 남을 제도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인류평화를 위한

총지동의보감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자궁출혈은 한의학적으로 붕루(崩漏)라고 표현합니다. 즉 붕루는 월경주기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

자궁출혈

생식기능이 미성숙한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결혼후나 가임기여성들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하거나 비위(脾胃)기능이 약한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민한 경우 등의 요인으로 자궁골반내의 순환장애 및 자궁의 수축순환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자궁이 위치한 하복부를 차게 하거나 차고 냉한 성질의 음식을 즐기 경우, 생리전후 몸을 출게 한 경우 등도 자궁순환을 저하시켜 자궁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경기를 전후한 경우에는 자궁과 난소

생리전후 몸을 출게 한 경우 자궁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崩(붕)은 대량의 지속적인 출혈을 말하며 漏(루)는 지속적인 소량을 출혈증상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임신에서는 붕과 루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崩(붕)의 경우 현대의학에서 유산이나 포상기태, 임신용모양, 자궁의임신 등이 있을 경우 동반되며 漏(루)의 경우는 자궁내막암이나 자궁경부미란, 용종, 배란기출혈, 경구피임약의 복용, 등의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30-40대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등의 자궁질환이 있을 경우 후기 진행되면서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량이 증가하며 생리기간외의 출혈증상이 나타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수술이나 자궁적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궁출혈은 연령에 따라서 발생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춘기를 전후한 자궁출혈의 원인은 자궁과 난소를 비롯한

및 생식기능의 전반적인 약화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자궁출혈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虛(허), 熱(열), 瘀(어)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경우도 虛(허)로 인한 경우 자궁을 비롯한 주변생식기와 연관된 오장육부의 기능을 함께 살펴 조절하고 보강함으로 생리를 조절하게 되고 熱(열)로 인한 경우 울체된 간기능을 풀고 이로 인해서 심장과 폐에 쌓인 열을 풀어 기혈순환을 돕게 되므로 자궁골반으로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게됩니다. 瘀(어)로 인한 경우 부족한 기혈을 보강하거나 울체된 경우 풀어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도와감으로 생리를 조절하고 돕게됩니다.

치료외에도 여성에게 있어 자궁의 건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매달의 건강한 생리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여성스스로가 매달 배출되는 생리에 관심을 기울여 자궁질환을 막고 예방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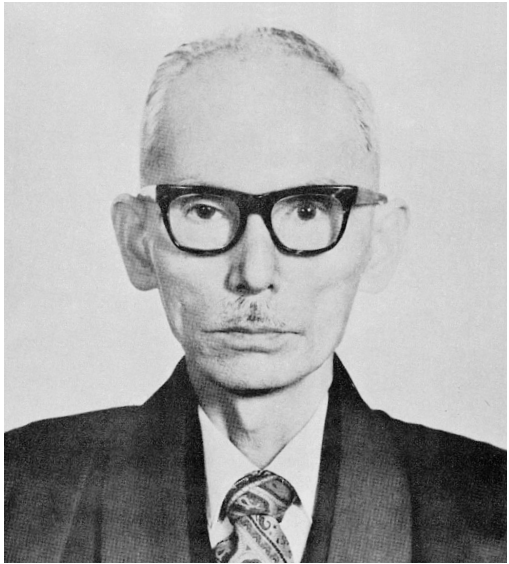
▲ '진언수행의 길' 기본 책자

果法)을 무시하는 사견(邪見)이니 내가 스승을 경만한 것이 곧 반영(反映)되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 사회 또는 한 교단이 흥왕하려면 그 지도자 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어야하는 것은 고금(古今)이 일반(一般)이므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은 무상(無常)하나 법은 불변하고 자기형편이나 자기교화(自己敎化)에만 집착하기 보다는도 종단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세우기는 대아적(大我的)인 위치에서 현세정화(現世淨化)에 사명감을 가지고 퇴진없는 정진으로서 종단의 유구(悠久)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結實)을 거두어서 우리 총지종(總指宗)의 입교개종(立敎開宗)의 정신이 중외(中外)에 빛나고 세 계만방에 불일(佛日)이 증휘(增輝)하도록 하는데 훌륭한 역군이 될 것을 서원하여 마지않는다.

(종조법설집 3쪽~6쪽)

지상설법



▲ 종조 원정 대성사

이번 지상설법은 종조 원정 대성사에서 직접 설법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를 알 수 없지만 종조님의 육성을 지면에 올렸습니다. 녹음자료는 법장화 스승님이 통리원에 1993년 3월24일 기증한 테이프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시간에는 교상과 사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법계를 알려면 교상과 사상으로 나눕니다. 교상에는 이론적인 면 즉, 교리적인 면입니다. 사상에는 실천적인 면 즉, 행사적인 부분입니다. 이 두 사상은 새의 날개와 수레바퀴와 비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며, 어느 한 쪽만 있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두 개가 존립해야 합니다.

또한 두 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교도에게 도움을 주는 즉, 중생에게 가피력을 주어야 합니다. 좋은 이상이라도 현실에 맞는 실천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상이 훌륭하려면 사상이 겸비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상은 철학적인 면이 있다면, 사상은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밀에 의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비밀불교가 어렵고 알 수 없다는 말을 교도들이 많이 합니다. 법계(부처님 세계)의 세계는 중생이 볼 때는 비밀입니다. 깊고 위대하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무궁무진합니다.

중생이 법계로 가는 비밀의 세계가 심오하므로 진언다라니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으며, 말과 글로서도 표현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대덕들이 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보다도 적습니다. 전체를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밀은 무한합니다. 우주법계이신 대일여래부처님은 모두 압니다. 하지만 아미타불부처님은 서방쪽만 담당하시고 그쪽만 압니다.

불공성취불은 북방, 아축불은 동방, 보성불부처님은 남쪽만을 압니다. 총괄은 대일여래부처님이 다 하십니다. 부처님세계에서도 이

습니다. 법계의 진리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우리도 경전을 쓸 수 있고 사상이 나옵니다. 중생근기에 따라, 시대의 추이에 따라 정진하면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의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밀교란 비밀불교의 약자입니다. 공개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秘)는 비오(秘奧)한 뜻과 밀(密)이 은밀이 전하는 뜻입니다.

밀교는 여러 내증의 법문을 설한 허상이 아닌 진실 비밀의 교로서 신.구의 3밀을 중

지 못하므로 이것을 중생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기안의 불성도 모르고 본성도 모르고 개발 할 줄 모르는 것이 중생의 비밀입니다. 산 속에 보물이 묻혀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산 자체는 그 속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다는 것을 모르니 자신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의 비밀>입니다. "자수용신과 변화신의 부처는 기근을 인도하여 정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서 권교를 설하고 법신이 내증한 경계인 비밀법문을 설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여러 비밀이

중생은 자신에 있는 불성을 찾으면 대일여래와 다를 것이 없다

를 정도인데 하물며 중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진언염송 조금 했다고 안다면 비유컨대 문지방의 문틈으로 본 것 밖에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생도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과거의 금강지, 용수보살도 했습니다. 경전을 쓰고 번역하고 했습니다. 산만 높다고 쳐다보지 말고 올라가서 죽을지언정 올라가는 마음부터 정해야 됩니다. 수도자로서 구도자로서 마음을 내어 정진해야 합니다. 지극하고 돈독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도 그들처럼(용수보살) 수행하면 공종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

으로 하여 아무에게나 설하지 않고 근기를 선택하고 교법을 비밀이 전합니다. 석가여래부처님이 설한 교는 8만4천 법문에 나타난 것이 현로불교, 현교입니다. 비밀에는 중생의 비밀과 불(佛)의 비밀이 있습니다.

중생이 해도 모르는 비밀, 자신도 모르며 하는 것이 중생의 비밀이며, 부처님끼리 알고 전하는 비밀을 불의 비밀입니다.

먼저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일체중생은 본래 이치와 지혜를 구비하였으므로 대일여래와 다른 것이 없다." 중생은 대일여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번뇌, 망상, 무명에 덮혀 선교의 덕을 알

라고 한다."

부처끼리만 아는 것, 대일여래와 4불이 교감하고 설하는 것이 여러비밀입니다. 자수용신은 내증한 비밀을, 타수용신은 중생을 상대로 권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권교 한다고 합니다. 근기에 대해서는 법을 설하고,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은 법을 아껴서 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가 아닌데 설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지 설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밀교는 진언과 다라니로 공덕염불로서 성불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부처님과 통화하고 교감을 하려면 다라니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여울

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 공경함이고,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함이며, 셋째는 여러 가지로 공양함이고, 넷째는 업장을 참회함이며,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함입니다. 여섯째는 설법해 주기를 청하며,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함이고, 여덟째는 부처님을 본받아 배움이며, 아홉째는 중생의 뜻에 수순함이고, 열째는 모두 회향함입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일 없는 도인

생각 끊고 반년 쉬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불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구나.

생각 끊고 반년을 쉰다는 것은 마음에서 얻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른바 일 없는 도인(閑道人)이다. 어디에나

엄매임 없고 애당초 일 없어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 녹수청산에 마음대로 오고 가며, 어촌과 주막에 걸림 없이 지내거리. 세월이 지나오나 내 알 바 아니지만 불이 오니 예전처럼 풀잎이 푸르구나.

<서산·선가대감>

독수리를 이긴 작은새

어느 날 라바라는 작은 새가 독수리에게 잡혔다.

라바는 피를내어 "나는 집에서 멀리 떠나 놀다가 이런 재난을 당했어요"하며 은근히 자기 집을 가르쳐 줄 뜻을 비쳤다.

독수리는 빙긋이 웃으면서 물었다. "너희 집은 어디냐?" "우리 집은 밭 가운데 움막에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라고 라바는 약을 올렸다.

'건방진 놈이군. 내 힘도 보여주고 새집도 덮쳐 일거양득 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독수리는 새를 집까지 데리고 갔다.

라바는 동지 가까이 있는 한 농부의 움막을 가리키면서 자기집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독수리는 쏙살같이 움막으로 돌진해 천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마침 움막을 지키는 농부에게 맞아 죽고 말았다.

라바는 "어리석은 독수리가 지혜로운 나를 당할 것인가. 불쌍한 독수리!" 하며 날아가 버렸다. <잡아함경>

한 동이의 물

옛날 인도에 망고 숲을 세 군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세 아들을 불러 망고 숲 하나씩을 맡겨 놓고 날마다 망고나무 한그루에 한 양동이씩의 물을 주도록 이른 다음 여행을 떠났다.

큰 아들은 매우 머리가 좋아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성미여서 크고 작은 망

고나무에 한결같이 한 양동이씩의 물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나무의 크기부터 재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무의 크기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뿌리의 크기에 따라, 주는 물의 양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나무를 한 그루씩 뽑아 그 뿌리의 길이를 재었다.

결국 그런 일을 하는동안에 시간이 흘러 망고나무는 한 그루도 남김없이 모두 죽어 버렸다. 둘째 아들은 몹시 게을러서 날마다 조금씩 물을 주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 여겨 아버지가 여행하는 날짜만큼의 물을 한꺼번에 주고 다음부터는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고나무는 모두 시들어 버렸다.

셋째 아들은 아주 사려깊은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필경 오랜 동안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알고 아버지의 말과 같이 날마다 나무 한그루에 한 동이씩의 물을 주었으므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모든 망고나무가 싱싱하게 자라 있었다.

<잡아함경>



2011년도 햇보리자 총지중108염주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원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세상사는 이야기

일본인은 왜 우리 땅 독도에 본적을 옮기나?

며칠 전 신문에서 또 황당한 뉴스를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화나게 하는 소식이었다. 일본사람 69명이 독도로 본적을 옮겼다고 한다.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다오위다오(뎡가쿠)열도, 쿠팔열도(북방영토) 등에도 1월 현재 526명의 일본인들이 본적을 옮겼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 '독도'를 마치 그들의 땅인 것처럼 이름을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드디어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날'로 지정 했다. 이때 받은 우리 국민의 분노가 아직도 다 풀리지 않았는데 이들은 또 우리들의 가슴을 긁어놓고 있다.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용 검정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기로 결정 했다고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끊임 없이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독도 문제를 국제 재판에 끌고 가려는 속셈이라고 한다. 국제 재판에 가면 그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인들은 차분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내 언론이나 네티즌들도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69명의 일본인이 독도로 본적을 옮긴 것도 독도에 대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한다. 우리들은 좀더 진지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펼치는 논리에 조목조목 잘못되었음을 밝혀야 한다고 학자들과 언론에서 말하고 있다. 분쟁만 일으키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해외 논문 발표 등 실질적인 대응이 되도록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분쟁이 두려워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지지 않을까?

우리 국민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도 문제를 커질 때만 관심을 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민간 단체나 개인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언제쯤 풀릴까?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중의 하나인 일본은 가장 먼 나라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으로 우리들 가슴은 꽁꽁 얼어 버렸는데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나라 영토를 넘보고 있으니 우리들의 얼어붙은 가슴은 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조금 녹을 만 하면 또 얼어붙게 만든다.

가까운 예로 아직도 그들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남아 계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세상 떠나실지 모를 일이다. 돌아가시기 전 그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할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1923년 9월 1일에 일어 났던 '일본 관동 대 지진' 때에도 일본은 민심이 동요되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자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댔다고 소문을 퍼뜨려 한국인 학살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일본은 아직도 희생자의 숫자와 신원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우리들은 관동 대 학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촉구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

지난 겨울은 너무 추위 이대로 겨울만 지속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 할 때도 있었다.

겨우내 꽁꽁 얼어 붙어 영영 녹지 않을 것 같은 열음도 다 녹고 길 옆에 높이 쌓여 있던 눈도 다 녹았다. 며칠 동안 따뜻한 날씨에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추위로 어느새 멀리 가 버렸다.

긴 겨울 동안 눈 속에 파묻혔던 대지에 눈이 녹으니 어느 사이에 그 속에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록의 뾰족한 새싹을 밀어내고 있다. 어린 새싹을 밀어내느라 얼마나 애 썼을까? 위대한 힘이 느껴진다.

꽁꽁 얼었던 대지도 때가 되면 열음이 녹는다. 열음이 녹아 촉촉해진 대지 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 우리들 마음까지도 파사로워 진다.

활기차게 날아 오르는 온갖 새들도 즐겁게 노래 부르며 짝을 찾아 동지를 만들고 있다. 내 마음도 새처럼 날아 오르고 싶다. 벌써 날아 오른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고 활짝 열게 해 주는 봄이 왔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풀 수 없는 관계인가? 아직도 꽁꽁 얼어 붙은 겨울이다. 일본은 같은로는 관계 개선을 외치지만 한 편으로는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일본은 마음을 활짝 열고 본 얼굴을 들어내어 사과 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 할 것은 해서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

- 박묘정 -

불교설화 <53>



▲사곡리 마을에 있는 말세우물. 나라에 변고가 있을때마다 물이 넘친다고 한다.

우물 물이 세 번 넘치면 말세가 온다는 전설로 유명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증평 사곡리 우물'이 충북도 기념물 143호로 지정되어있다.

이 우물은 1456년께 조성된 마을 공동우물로 직경 1.44m, 깊이 5.4m, 수심 2.8m 규모로 일반 우물보다 1.5배 가량 크다. 버드나무로 6각형의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축을 쌓아 올려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시대 우물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사곡리 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해 여름, 오랜 가뭄으로 산하대지는 타는 듯 메말랐다. 더위가 어찌나 기승을 부렸던지 한낮이면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밖에 나오질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지금의 충청북도 사곡리 마을을 지나며 우물을 찾았다 더위에 먼 길을 오느라 갈증이 심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스님의 눈엔 우물이 보이질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스님은 어느 집 사립문을 밀고 들어갔다.

『주인 계십니까? 지나가는 객승 목이 말라 물 한 그릇 얻어 마실까 합니다.』

『대청마루에 잠깐 앉아 계세요. 곧 물을 길어 올릴 것입니다.』

주인 아내는 길어다 놓은 물이 없으며 물동이를 이고 밖으로 나갔다.

스님은 아낙의 마음씀이 고마워 대청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러나 물길러 간 아낙은 몇 시간 지나도 오질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스님은 목마른 것도 바쁜

도승과 말세 우물

우물은 자비의 뜻과 삶의 정도를 일깨워 주고 있어

길도 잊은 채 호기심이 생겨 아낙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저녁 무렵, 아낙은 얼마나 걸음을 재촉했는지 숨을 몰아쉬며 한 손으로 구슬땀을 닦으면서 물동이를 이고 왔다.

『스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낙은 공손히 물을 떠 올렸다. 우선 시원한 물을 받아 마신 스님은 궁금증을 풀 양으로 아낙에게 물었다.

『거, 샘이 먼가 보군요.』

『이 마을엔 샘이 없습니다. 여기서 10리쯤 가서 길어온 물입니다.』

아낙의 수고를 치하한 스님은 무슨 생각에선지 쥔고 온 지팡이로 마당을 세 번 두들겨 보았다.

『과연 이 마을은 물이 귀하겠구려. 마을 땅이 층층이 암반으로 덮였으니 원... 그러나 걱정마시오. 내 주인 아주머니의 은공에 보답키 위해 좋은 우물 하나를 선사하고 가리다.』

이 말을 남긴 스님은 그 집을 나와 마을 구석구석을 살폈다.

동네 한복판에 이른 스님은 큰 바위에 다가서서 역시 지팡이를 들어 세 번 두들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우물을 파다가 도승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들에게 일렀다.

『이 바위를 파시오.』

『스님, 여기는 바위가 아님니까? 물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청년들이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으나 스님의 표정은 태연자약할 뿐 아니라 엄숙하기까지 했다.

『자, 어서 여길 파시오. 겨울이면 더운물이 솟아날 것이고 여름이면 냉차 같은 시원한 물이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장마져도 넘치지 않을 것이요.』

청년들은 도승의 말에 위압당한 듯 어안이벙벙했다. 이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서더니 스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파보자고 제의했다.

장정들이 반쯤으로 사흘을 파도 물줄기는 보이질 않았다. 스님은 계

속 팔 것을 명했고, 청년들은 내친 걸음이나 시키는 대로 해보자며 작업을 계속했다. 닷새쯤 뚫을 때다. 바위 틈새에서 샘물이 솟기 시작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팔팔 흘러 금방 한길 우물 깊이를 채웠다. 청년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서로 부여안고 울며 춤을 쳤다.

샘물이 솟는다는 소문에 온 마을이 뒤집혔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물을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물을 마시며 기뻐했다. 그들에게 생명의 샘이나 다름없었다. 이 모습을 아무 표정없이 지켜보던 스님이 입을 열었다.

『자, 조용히 하고 소승의 말을 들으세요. 앞으로 이 우물은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님은 들은 체도 않고 말을 이었다.

『지나날 수암대군이 조카 단종 임금을 폐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만약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그보다 몇 배 더 큰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님, 이 우물이 그렇게 무서운 우물이면 차라리 지난날처럼 10리 밖 개울물을 길어다 먹고 살겠습디다.』

『너무 걱정들 마시오. 이 우물이 세 번 넘치는 날이면 이 세상은 말세가 되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이 말을 남긴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표현히 자취를 감췄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도 컸지만 한편으로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이들은 모이기로 하면 어떤 비슷한 말을 주고 받았었다.

『평생 숙원인 우물이 생겼네만...』

『과연 기이한 일일세구려.』

『그 도승의 말을 너무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으니.』

그러나 「우물이 세 번만 넘치면 말세가 온다」는 소문은 차츰 멀리 퍼져나갔다.

『과연 우물이 넘칠 것이

가.』 사람들의 입에서 화제가 되는 동안 세월은 어느덧 몇 년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물 길러 간 아낙 하나가 우물가에서 기절을 했다. 우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말은 삼시간에 이웃 마을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무슨 변이 일어날지 몰라 안절부절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난이 곧 임진왜란이었다.

또 한번 이 우물이 넘친 것은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이 우물은 새벽부터 철철 넘치고 있었다 한다.

6·25의 민족적 비극을 알리기 위한 우물의 충정이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무 일 없이 정량을 유지한 채 조용히 솟고 있는 이 우물이 과연 또 넘칠 것인가. 그리고 스님의 예언대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가.

약 50호의 농가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충북 괴산군 증평읍 사곡리 마을의 말세우물. 아무리 많이 퍼

어도 또 가물거나 장마가 들어도 한결같이 줄지도 늘지도 않은 채 그 깊이 만큼의 정량을 유지하고

마을 사람들의 식수가 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이 지닌 전설을 자랑으로 여기며 부처님 받들 듯 위한다고 한다.

한 스님의 신통력과 예언은 후세인들에게 신비의 전설로서 뿐 아니라 자비의 뜻과 삶의 정도를 일깨워 주고 있다.

- 심일화 -



▲하늘을 두려워하며 조상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라는 권유의 말씀이다.

'여성美' 조진화 원장

여성(女)성(性)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치료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어



여성美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자악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날마다 좋은날

살아 갈 날들을 위한 공부

덕현 (총지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살아가면서 '내 삶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반성과 함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대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지요. 저 또한 그러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를 일깨워주는 책 한권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살아 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인생의 마지막 2년을 남기고 완성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삶의 진리를 찾던 톨스토이가 자신의 경험적 깨달음을 적은 집언집입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글 속에는 삶의 회한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애착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로지 살아가기 위한 수단, 즉 생활의 방편



▲톨스토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모스크바 남부시골 이스티포보 역(톨스토이 역)

으로 무엇인가 배우려고만 했지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공부 할 생각도 그다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평탄하고 편한 삶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요. 지금까지 저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려고만 노력

해왔지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책을 펼쳐봅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어느 덧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 세상살이가 힘들게 다가올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이 책을 펼쳐들면 마음에 무엇인가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서 저는 이 책이 무척 좋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따뜻합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옮겨 봅니다.

“삶을 위한 지침”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집을 지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 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와 충고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삶의 지표와 생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짧은 경전의 한 구절의 말씀이나 한마디의 법설,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배웁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즉사이진, 매사에 진실하라

명성 저 | 불광출판사



『즉사이진, 매사에 진실하라』는 책 제목처럼 한평생 청정한 계율과 공심으로 진실하게 살아오신 명성 스님의 간곡한 법문이 담겨 있다.

총 6장, '해탈의 길', '짧은 구도자들에게', '보살의 삶, 보살의 행', '지혜의 등불, 영원한 삶', '법화산림', '발심과 성불'로 편집된 법문집을 읽다 보면 80이 넘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열혈청년과 같은 명성 스님의 낭랑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후덕하고 진실한 삶의 향기가 담긴 법문집을 읽으면 스스로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느낌이 든다.

특히 '새 시대가 요구하는 출가지도자상', '여성지도자로서의 비구니의

역할', '이상적인 어머니상' 등의 법문을 통해 한국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일깨워주고 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원영 저 | 불광출판사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불교 경전인 「율장」에 나와있다. 이 책은 율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님 당시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본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수행시 어떻게 해결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출가자로 받아 주고 어떤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법을 설할 것인지,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면 안 되는지까지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

야기들이 담겨있다.

부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집약하게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오늘날, 믿는 것 이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이 책을 통해 철저하게 '율'을 따라 살았던 수행자들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천수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

이광복 저 | 청어



이 책은 대승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천수경(千手經)』을 토대로 성공을 이끌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이 책에는 『천수경』에 기초한 일련의 성찰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이해하기 쉽게 실증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의 내용으로 개인의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두 원하는 성공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삶에서 성공과 실패는 무상으로 교차하게 마련이므로 숨을 거둘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 어렵더라도 보다 나은 내일의 성공을 위해 『천수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 어렵더라도 보다 나은 내일의 성공을 위해 『천수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속의 불교상당

권경희 저 | 도피안사 (DOPIANS)



김내성 문학상을 받은 여류 추리작가이면서 상담심리학 교수인 저자 권경희의 『심리상담』에세이 모음이다. 상담심리학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소설적 문장력으로 술술 읽히게 썼다.

또한 불교의 딱딱한 경전을 쉽게 풀이하여 현대인의 심리 갈등의 해소 방법으로 응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게 하였다. 현대인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고민과 갈등을 사례별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건강한 불자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지혜를 줄 것이다.

우리들 이야기

혼자서 가라...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길...

태어날 때도 혼자서 왔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고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그래서 사람의 네가지 고독함이라 했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생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고현 (진언행자 카페글)

생활상식

◀새 옷은 소금으로 애벌 빨래하면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

새 옷을 세탁할 때는 색깔을 선명하게 해 주는 소금으로 애벌 빨래하는 것이 좋다. 먼저 옷을 물에 적신 뒤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려 문질러 헹군다. 그 후에 세제로 빨면 색이 변하지 않는다. 목면 티셔츠의 경우 세제에 소금을 섞어 빨아도 효과적이다.

◀긴장 얼룩은 시금치 데친 물로 제거

간장이나 음식물이 떨어져 생긴 수

성 얼룩은 시금치 데친 물을 식혀서 적신 뒤 마른 걸레로 위아래 양면을 두들기면 된다. 그런 다음 물기를 꼭 짰 걸레로 닦아 내면 얼룩이 깨끗하게 빠진다.

◀부피가 작은 것을 표백할 때는 빈 병을 이용

뚜껑이 있는 빈 병에 미지근한 물을 70% 정도 채우고 적당량의 표백제를 넣은 뒤 그 속에 표백할 것을 넣고 30분 정도 담가 둔다. 그런 다음 뚜껑을 덮고 1 분간 흔들면 된다. 마지막으로 표백제를 버리고 새 물을 넣어 다시 흔드는데, 이 과정을 4~5 회 반복하면 따로 헹굴 필요가 없다.



불교상식⑧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불교는 크게 현교와 밀교로 나뉩니다. 현교는 '석가모니불을 교주로 하는 응화불(應化佛)의 가르침'이고, 밀교는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법신불(法身佛)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현교의 교주이신 석가모니불은 이전오백년전에 세상에 나투셨고(현로=顯露) 중생의 근기에 따라 팔만 사천 가지의 다양한 방편으로 설해져 있으며, 비로자나불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없고(비불=秘佛), 그 법 또한 비법에 가려져

신통묘유함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비밀불교 라고 합니다. 하나는 법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드러난 불교' 현교라고 하고, 또 하나는 법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의 불교' 즉 '밀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교는 방편설이므로 여러 생을 닦아야 성불한다고 합니다. 밀교는 비로자나불의 당체설법을 증득함으로써 내세를 기다리지 않고 몸 그대로 즉신성불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합니다.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 시
- ◆ 연습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 연습장소 : 정각사 합창단실
- ◆ 연 락 처 : 김 윤 경 단 장 051)552-7901



법정스님 1주기 추모다례 봉행 무소유 큰사랑 그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합장을 하고 있다.

‘무소유 수행자의 삶’을 보여준 법정스님의 추모1주기 다례 재가 2월28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법정스님은 다비식 외에 일체의 장례의식도 거행하지 말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몸소 무소유를 실천하고 지난해 3월 11일 원직에 든 우리시대의 큰 어른의 스님이다.

다례재는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각계 인사, 신도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모법회에서 송광사방장 보성스님은 추모법문에서 “미래사에서 머리깎고 쌍계사에서 스승

이신 효봉스님을 시봉했네. 효봉스님께서 보여주신 방철한 규범을 보고 발심해서 물러남이 없었으니 한평생 무소유를 수용하고 붓과 헛바닥으로 간담을 드러내서 유연중생 무연중생을 제도하더니 인연이 다하자 조계산에서 낙조를 보이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석법문을 통해 법정스님이 쌍계사에서 노장님(효봉스님)을 시봉할 때 반찬거리가 시원창아 20리길을 걸어 고추장을 구해 오느라 늦어 점심공양을 하지 않은 일화를 소개하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은 세세생생 잊지 못할 거요. 출가자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라며 할을 내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간절

히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모두 맑고 향기로운 스스로의 진면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스스로의 진면목을 찾을 때 이 세상은 향기로운 메아리로 가득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사형인 덕운 스님의 주지직을 이은 덕운 스님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다.

덕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소유 사상으로 큰 메아리 남기고 간 법정 스님의 1주기를 앞두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

하고 은사 스님께 깊이 참회한다”며 “앞으로 길상사가 은사 스님의 정신에 입각해 맑고 향기롭게 화합할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해인사 백련암감원 원택스님이 법정스님의 진영을 모신 것을 찬(讚)했으며 한양대 음대 박경옥교수가 추모헌음으로 ‘성불사의 밤’ 연주와 평소 법정스님이 좋아했던 청산은 나를 보고 라는 찬불가 합창이 헌음됐다.

진각복지재단 ‘사랑의 헌혈’

진각복지재단은 2월 18일 법인 설립 13주년을 맞아 서울 월곡동 진각복지센터에서 ‘진각복지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각복지재단과 진각종 통리원, 산하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헌혈에 참여하거나 헌혈증을 기부했다.

헌혈에 동참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는 “아픈 사람이 생

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아픈사람이 생겼다면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진각복지재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헌혈 릴레이’를 정례화 하는 한편, 전국 산하기관과 시설로 확대하고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와 약정을 통해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고령자 출가제한 해제해야 사회 인재를 모시는 기회로



▲조계종은 출가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조계종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는 2월24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출가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주경스님은 “종단은 여러 중법령으로 사실상 출가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

다”며 “출가자의 연령 제한 문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윤장정신을 실현할 것이냐 현실적인 부작용에 따라 제한해야 할 것이냐로 상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종단 승려법과 교육법에 따르면,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출가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

낙동강 낙단보 1080배 정진 회향 민족문화 수호및 결사운동 실천



▲낙단보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1080배 정진을 하고 있다.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2월18일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낙동강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생명살림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이 있었다.

1080배 정진 대중 300여 명은 이날 오후12시부터 진행된 정진을 3시 55분경 사후서원을 끝으로 불상사 없이 마무리했다. 낙동강 낙단보 공사현

장은 최근 마애불이 발견된 곳으로, 민족문화 수호와 자성과 해신의 뜨거운 결의를 재차 다지는 계기를 삼기 위해 낙단보 마애불 앞에서 1080배 정진을 거행하게 됐다. 이날 정진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재가종무원, 산하기관 직원,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080배 정진 회향식은 다시금 민족문화 수호와 자성과 해신을 위한 결사를 원만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민족문화수호위 상임집행위원장 장적스님은 정진 대중을 대표해 결의문을 통해 “민족문화 수호활동과 결사운동은 우리 불교인부터 스스로 변화겠다는 원력을 실천하는 것으로 국민과 사회와 함께하는 대승불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발원”이라며 “우리 동참대중은 백척간두 전일보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길에 동참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정진 동참 대중은 마애부처님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며 4대강 사업 공사로 인해 무참히 훼손되기 전에 막아내지 못한 자신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족문화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만남과 소통 4월8~10일 국제연찬회 개최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만남과 소통 국제연찬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북방불교의 간화선과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각각 대표해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스님과 미얀마 파옥사원 조실 파옥사야도스님을 초청해 양대 수행법의 체계와 특징을 알아보고 직접 체험하며 수행법상의 의문점을 두 스님으로부터 점검받는 연찬회로 마련됐다.

연찬회는 첫째날인 오는 4월8일에는 파옥사야도스님을 초청해 법문과 위빠사나 수행문답, 위빠사나 체험을, 4월9일에는 원로의원 고우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법

문과 간화선 수행문답, 간화선 체험 등을 갖게 된다. 4월10일에는 고우스님과 파옥사야도스님이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해 대화한 뒤 청중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한편 4월 5일 한국을 찾는 파옥스님은 4월 7일 조계사 선립원 특강과 4월 12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중법문도 진행한다. 국제연찬회에는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15만 원이다. 국제연찬회 참가희망자는 전통불교문화원 홈페이지 (www.budcc.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maum@buddhism.or.kr)이나 팩스 (041-841-6060)로 접수하면 된다.

를 모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사성 교육위 교육위원은 윤장과 교법에 어긋나는 현행 출가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사성 위원은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불교정신에서 출가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고령 출가에 따른 문제의 소지는 고시나 법제 등 기존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능력이나 자질을 판단, 걸러내면 된다”고 제시했다.

기독교재단 고교 ‘종교 서약서’ 물의

학생들에게 종교서약 강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에 따르면 전주 신흥고등학교는 올해 3월 입학한 앞둔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배 등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순종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학교는 서약서에 이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하게 하고 있다. 이에 종자원은 2월 11일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서약을 받는 것은 종교 강요에 해당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종자원은 “신흥고는 종교 인권과 기본권을 노

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서 “성직자를 육성하는 학교에서나 가능한 순종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어떻게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비판했다.

또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도 지난 12월 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산명예규약(The Honor of Dongsab)’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학생종교 자유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동산고는 ‘성경말씀대로 살고 기도에 더욱 힘쓰겠다’, ‘동산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앙 성장에 힘쓰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 창조, 협동, 경애
교 목 : 보리수

• 일시 : 2011년 3월 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해오름관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운천사 교도 화합과 지역교화에 힘써

월초불공 후 정기적인 등산



▲운천사 스승과 교도가 화왕산 정상에 섰다.

운천사(주교 도현)교도들이 내부적으로 교도 화합을 외부적으로 교화에 힘쓰고 있다. 교도들은 월초불공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올린 불공의 긴장을 풀기 위해 근처 목욕탕에 간다. 심신을 풀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가족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찜질방에서는 달걀을 까서 먹으며 불교와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 꽃을 나누며 서로 질문과 대답 안에서

배움이 있었다. 운천사 자인행 전수는 “교도들이 정진불공 후 목욕을 이용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표현이고, 우리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도들은 운천사 스승의 도움으로 인근 지역 등산도 간다. 창원용지봉, 장녕화왕산을 갔다 왔으며 최근에는 덕유산을 다녀왔다. 산에 오르면 자연을 배우고 나를 바라 볼 수 있어 좋

다고 했다. 교화는 항상 큰소리로 “우리들은 총지종 창원 운천사에서 왔어요”라고 주변의 등산객이나 찜질방 사람들에게 소속을 알려 절에 나오기를 권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창교절에는 어르신 교도 대 아지매교도 대항 풋볼 이틀 해서 어르신교도가 2:1로 이겼다. 아지매교도가 쉽게 이길 줄 알았으나, 어르신교도가 이겼다. 아지매교도는 경험의 소중함과 존경심을 표현했다. <운천사 이수연 통신원>

탁상달교사 동해중 교감 취임

종립학교 부산 동해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중인 탁상달 선생님이 교감으로 3월 1일부터 취임했다. 탁 교감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문인협회 이사, 부산교사불자회 회원 등 사회적으로 문학과 불교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작년 대구에서 가졌던 중보 통신원 모임에서 교도에게 ‘효과적인 글쓰기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한 바 있다. 당시에 통신원들은 신문 기사 작성법과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반응이 높았었다.

동해중학교 입학식

“자격과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자라날 것”

종립학교 동해중학교가 3월 3일 학교 해오름관에서 2011학년도 입학식을 가졌다. 183명의 신입생을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이날 장재계 교장, 김현우 이사, 탁상달 교감, 학부형, 선생님들이 참석하였다. 장재계 교장선생님은 축사에서 “수업시간에 학습동아리

와 학습멘토제를 활용하여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것” 이라고 수업시시스템을 설명하였다. 또한 “앞날의 지도자가 될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학생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입생들은 모두 7학급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게된다.

우리들의 밤하늘



동해중 2학년 2반 안이레

오늘 문득 하늘을 보았다. 이리저리 내가 아는 별자리들을 찾아보았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어릴 적 시골 큰집에서 더 밝은 별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형과 우기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 보통 도시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 빛을 가리고 있고, 또한 스모그

현상 때문에 공기가 탁해져서 그런 것이다. 건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가 계속 잘 돌아갈 것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아마도 과학이 발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해 아주 큰 피해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지구 전체에 큰 자연재해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나 아이티의 지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에너지

면에서 보면 석유도 백년이 안 돼서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나 석탄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깨끗하고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는 과학자의 일이 아닌 우리들이 해야 할 몫

얼마 전에 구포도서관에서 금요일마다 실시하는 ‘과학터치’를 다녀왔다. 그 곳에서 복합에너지에 대해 들었다. 우리의 미래는 수소가 사회를 움직이는 수소경제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사로 오신 인제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이 되는

이유는, 일단 수소는 물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거의 무한정하며 태웠을 때 석탄이나 석유처럼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나온다. 단위 무게 당 가장 큰 에너지 효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소에도 약점은 있다. 아직 수소를 물에서 분해할 때 사용되는 전기의 양이 생산된 수소가 생산해 내는 전기의 양보다 적다는 것이다.

고체로 저장해야 한다. 액체나 고체로 저장하려면 그 곳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특정고체가 수소를 붙잡는 식의 고체 수소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고체의 효율이 떨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래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마구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발명하거나 발견하면, ‘아! 그런가 보다.’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 이처럼 미래는 과학자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정작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갈 사람은 지금의 과학자가 아닌 미래의 과학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나는 오늘도 밤하늘을 보며 반성을 하게 되고 미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며 꿈을 꾸는다.

총지문화답사팀 3월 26일에 모인다

‘낙산’ 서울성곽 길에서 상춘(賞春)



▲낙산 성곽길

총지문화답사팀이 3월 26일 (토) 서울성곽 길에서 봄을 맞이하러 나들이를 간다. 그동안 문화답사팀은 새해월초 불공과 상반기 49일 불공시작 등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작년 11월 총지교도로 구성된 총지문화답사팀은 국립박물관에서 고려불화를 관람한 바 있다. 관람 후 이와 같은 행사관람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의 뜻을 모아 이번 답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문화답사팀은 역사물 탐방, 공연관람, 여행, 등산, 사찰방문등 문화의식 함양과 교도들간의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데 그 의의

를 두고 있다. ‘서울성곽 길’은 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으로 이어지는 18.7km의 서울성곽 둘레를 걸으며 그 안에 갖든 역사와 문화, 생태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트레킹코스다. ‘서울성곽’은 4대문인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돈의문과 4소문인 창의문, 혜화문, 광화문, 소의문을 포함, 조선의 도읍지 한양을 에워싸고 있는 도성으로 국보 8개를 포함하여 총 169개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이번 탐방코스는 동대문성곽 공원에서 출발하여 낙산공원을 거쳐 혜화문에 이르는 성곽 길을 걸을 예정이다. 이 구간은 작년 연말에 공사

낙산공원과 성곽 길이 있으며, 넓은 길과 가파르지 않은 완만한 길이 2.1Km 이어져 있다. 한편, 총지종교도이거나, 가족, 친구, 친구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당일회비는 1만원이며, 3월 26일 오전 10시까지 동대문역(1호선,4호선) 1번 또는 10번 출구로 나와 동대문성곽공원에 모임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종한 교무에게 문의하면 된다.

낙산(駱山)

낙산(駱山)은 서울의 형국을 구성하던 내사산의 하나로 풍수지리학 주산인 북악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이다. 낙산은 서편의 우백호(右白虎)인 인왕산과 대치되면서 조선왕조의 수도로서의 한양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양의 경계로서 능선을 따라 성곽이 축성되었다. 내사산은 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을 일컫는다. 산 북쪽에 흥화문(혜화문, 동소문)이 있었고, 남쪽의 흥인지문(동대문)이 있는 곳도 낙산의 자락이었다. 산 모양이 낙타(駱駝)의 등과 같다고 하여 낙타산 또는 낙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총지사 이옥희 보살 미용보시해



총지사(주교 선도원) 이옥희 보살이 교도들을 위해 미용보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보살은 미용기술이 있어 총지사 교도 뿐 만 아니라 수원 복지센터에서도 무료로 독거노인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이옥희 보살은 “머리를 손질해주는 것은 부처님의 보시법을 배워 행하고 있다.

우리 교도 뿐만 아니라 역삼동의 나이 드신 분에게도 미용보시 하고 싶다.”고 바램을 말했다. 머리 손질을 받은 교도들은 보시함에 성의껏 회사금을 내고 있다. 이 회사금은 가정이 어려운 이웃과 교도를 위한 성금으로 전액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에 보시하고 있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바라밀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통합적으로 보호하여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지도
- 교육프로그램 : 학습(국어, 영어, 수학, 독서지도, 기초학습지도)
- 문화프로그램 :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문화 활동(영화, 연극, 뮤지컬)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 지역자원연계 : 결연후원,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연결

●따뜻한 후원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습지원비 및 문화활동(견학 및 캠프)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가 되시면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 및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후원문의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수경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8 정각사 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전화 : 051)552-0705
팩스 : 051)552-0704

풍경소리**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 자도 오히려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살아도 역시 마음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자라도 기실 가난한 것입니다.

불유교경(佛遺敎經) 중에서

다 힘든 일

옛날, 파도에 놀란 어느 뱃사람이
배를 팔아 말을 샀습니다.
그런데 말을 몰아보니 굵이굵이
가파른 비탈길에
파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후론 밭갈이나 하리라.”



조선 인조 때의 문신 장만(張晩)의 시조(時調)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팔아 말을 산 우리의 주인공은
농부도 사공이나 마부처럼 힘들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정진권 / 수필가, 한국체육대학 명예교수

가르침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법구경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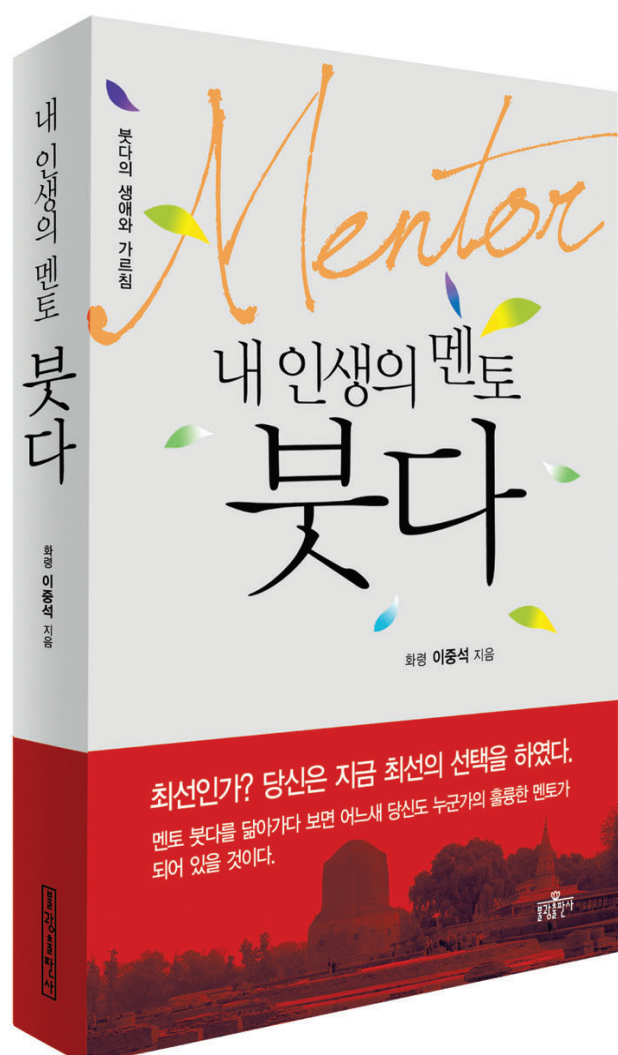
이달의 명상**그런 상상**

가끔은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지난 뒤에 봄날을
그 오랜 시련뒤에 희열을

사진.글 - 류 철 / 장흥에서
- 사색의 향기에서 -



내용참조: “불교총전” 353p-5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란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중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악몽이 곧 현실, 불교적 세계관 배창호의 <꿈>과 춘원의 <꿈>



“愛慾” 꿈

배창호 감독의 영화 <꿈>은 춘원의 소설 <꿈>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둘 다 <삼국유사>의 ‘조선 이야기’에서 비롯된 ‘인생무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이 악몽이라는 현실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은 꿈속과 다르지 않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제대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하나 두 장르는 꿈 속 인물의 형상화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소설 속 인물이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 인물이라면, 영화 속 인물은 욕망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꿈에서 깨어나는 상황의 차별성을 통해서 뚜렷해 지는데, 이런 차이점을 관찰하면서 두 장르를 지켜보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영화<꿈>(1990)은 보는 이의 감각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더 많은 자극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는 보이지 않는 소재인 아편중독이라던가, 매춘이라던가, 나병이라던가, 하는 인간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소재들을 끌어왔으며, 이런 장치들을 통해 주인공들을 끌어들여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법남이 10년이나 된 승려에게

고 그는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조신이 꿈에서 깨어나기 전의 처지, 이 처지는 소설과 사뭇 다른데 이 차이점이 영화와 소설을 가르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조신은 참회와 회한 후 한층 성숙된 단계에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이 설정은, 금강경의 세계관에 가까웠습니다.

금강경에서도 꿈에서 깨어날 것을 말하는데, 그 방법은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을 만큼 성숙된 단계, 형상을 넘어서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단계가 돼야 자신의 진정한 자아인 불성과 만날 수 있고, 현실이라고 믿었던 가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동병에 걸린 달례가 떠난 후 조신은 달례를 찾아 전국을 떠돌다가 달례의 죽음을 전

안도하는 주인공의 태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꿈꾸기 전 조신은 승려의 신분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달례와 연분을 맺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때를 스는 철이 덜 된 승려였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 후 조신은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열심히 수행만하는 승려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이런 변화는 조신이 꿈속 경험을 통해 살얼음 같은 현실의 속성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욕망이 바로 악몽이고, 악몽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인식입니다. 늘 쫓기는 기분, 이게 바로 우리고 발 딛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조신이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현실에는 우리가 마음을 돌만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각성은 이 소설의 원작자인 춘원의 개인 경험과 아울러 진정성을 갖게 됐습니다. <꿈>



꿈에서 깨어날 때 자신의 진정한 자아인 불성과 만날 수 있다

불사유를 비롯한 불살생 등 가장 중요한 5계를 파계하게 함은 물론 평범한 사람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비참하고 비굴한 상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에서 주인공 조신은 철저한 파멸이 아닌 승화를 선택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그는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가 출발했던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내에게 매춘을 강요하면서 밥을 빌어먹고 아편에 미쳐있던 그가 서서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것도 욕심 내지 않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처음처럼, 그는 백발의 노인이 돼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립니다. ‘탕자 돌아오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

해 듣습니다. 달례의 죽음이라는 상황은, 조신을 채우고 있던 달례에 대한 욕망, 즉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욕망이 사라진 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면서 수행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부처님 앞으로 다가오게 되고, 마침내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설 속 조신이 꿈에서 깨어나는 상황은 악몽의 절정에서였습니다. 손바닥을 볼 가까이 접근했다가 불의 뜨거운 열에 감쪽 놀라서 ‘앗 뜨거’ 하는 심정처럼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악몽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깨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한때는 자신의 동료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삶에 위협

적인 존재가 돼버린 평범이라는 스님을 살해한 후 살인에 대한 죄의식과 비밀이 들끓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죄상이 드러나게 되고, 사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소설 속 조신은 바로 이 사형의 순간에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왜 악몽의 절정에서 꿈에서 깨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마도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이 답은 악몽을 깬 후 악몽을 끔찍하게 여기고 현실에

>의 원작자인 춘원은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또한 그의 처지가 소설에서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인생무상’을 표현하기에 적당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저술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해방 후 때국노로 지탄 받으며 산사에 은둔해있는 처지에서 이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춘원의 <꿈>과 배창호의 <꿈>, 이들 두 장르는 불교사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이 현실의 악몽성을 극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었다면 영화는 악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는데, 둘 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악몽이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데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여호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또 그 얘기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현실을 꿈속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다는 우리 각자의 꿈속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즉 내 꿈을 나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황당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세계관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꿈>영화를 소설과 비교해서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은주(자유기독교) -

신행체험



김정연 교무

어릴 때 영전에 단음사가 생기기 전에 개천사 까지 엄마 손을 붙잡고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린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지금은 없어져버린 순두부찌개를 기억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서원당에서 고사리 손으로 엄주를 쥐고 엄마 옆에 앉아있는 아이의 뒷모습이나, 동전을 들고 나가 회사를 하고 합장을 하며 인사를 하는 아이를 바라보면 어릴 때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교무로써의 생활을 글로 옮기고 있는 나를 보면 총지종과 인연 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지종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하반기 49일 불공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무업무와 병행해서 새벽불공을 시작으로 오전 공식불공, 저녁불공 그리고 자성일 불공을 하는 것이 이제는 나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수

총지종과 함께 하는 나의 교무 생활

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일주일 간 합숙을 하면서 밀교나 총지종 본원에서 하는 업무 등을 익히는 교무교육을 받고, 여러 행사에도 많이 참여 하였습니다.

공주에서 열리는 국제재가불자대회에 지원 나가서 몸은 고되고 많이 힘들었지만,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곡사의 깨끗한 공기와 새벽하늘을 빈틈없이 덮었던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짧은 3박4일의 만남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던 각국의 사람들은 아직도 좋은 기억

서 많은 학생들을 통솔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뽀뽀한 일정에도 스키를 타면서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다치거나 큰 사고 없이 행사가 치러져서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호국안민기원대법회, 강공, 참교절, 종조별도절, 종조단신일, 신년하례법회 등과 같이 여러 행사에서 총지종의 역사를 알 수 있었고, 많은 스승님들을 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 할 수 있어

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자비를 들이서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외국인 불자들을 보면서, 총지종에서 생활하는 나 는 더 많이 배우고 공부 해야겠다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교무업무 틈틈이 하느라 연수에 많은 참여를 못했는데, 지휘자 선생님과 여러 보살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합창대회인 불교합창페스티벌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긴장감이 많이 느끼고,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열린 겨울 스키 어린이 수련법회를 하면

이런 총지종에서의 교무생활 이전에 다른 사회생활에서는 내가 옳다고 보고 배웠던 것들이 정작 다른 괴리감을 보이고, 그 다름을 내가 수긍하고 이해해야하고, 이미 몰두해 적응해 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나 자신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지금은 마음공부를 하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생활과는 달리 근무시간외에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스승님들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때에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부처님 말씀이나 좋은 글귀들을 듣고 읽을 수 있으면서 또한 마음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서원당이 가까이 있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새벽이나 밤 늦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나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합니다.

힘이 드는 일이 생기면 몸보시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행복하고, 내가 할 일 다른 사람이 할 일 구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 마음으로 하면서 마음이 더 없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없이 지나온 총지종과의 인연의 시간 이었습니다. 매일 4분정진과 마지막 날 밤 7시간 철야정진을 했던 새해 불공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에 불공과 업무 어느 한쪽으로는 치우침이나 모자람이 없이 둘 다 열심히 잘하자 라고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또 아직은 실수도 많지만,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 앞으로의 나의 교무생활을 내다보면서 오늘날도 새벽 불공 때 향을 쬔으며 어느 스승님께서 말씀해주신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을 기억하며 다짐합니다.

2011 Korean Buddhism Expo

한국불교박람회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11한국불교박람회가 3월17일부터 4일간 전국의 사부대중을 모시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신묘년 봉축일을 앞두고 신나고 멋진 불교문화행사와 큰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 불사와 가내에 필요한 법구와 불교용품 생산업체와 명인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풍요로운 삶을 위한 큰 스님들의 감미로운 법음
- 인드라스님의 플롯 연주
- 불자님들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 유라시아 아침의 라이브콘서트
- 우리웃 패션쇼
- 심검도 시연, 무용퍼포먼스
- 행운권 추첨하여 꾸집한 경품행사
- 무료입장입니다

전시기간 2011. 3. 17(목)~20(일)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전시장소 서울 양재동 aT센터
문의 02-706-3493
주최 불교신문, (주)제이엔터테인먼트
주관 2011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www.buddha365.com



“愛慾” 꿈

기획기사 **총지종 총지사 사원 설명**

서원당 불단(佛壇)의 문양(紋樣)



◎금강계 만다라



◎금강계 대일여래

④ 대장계 대일여래

대장계 대일여래는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나타내는 자성(自性) 이 법신(理法身)의 부처님으로서 대장계만다라의 중앙에 좌정해 있습니다. 이법신(理法身)은 아자 본불생(本不生)의 진실에 안주하는 불신(佛身)을 말합니다. 이 대일여래의 진언을 '나모 사만다 보다남 아비라함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자는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 '비'는 언어에 의한 표현을 초월한 세계, '라'는 때묻지 않은 세계, '함'은 집착에서 벗어난 세계, '캄'은 허공과 같이 장애가 없이 자유자재한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체의 근원인 지수화풍공 오대(五大)에 배대하여 오륜탑(五輪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자진언을 오색(五色)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오불(五佛)과 오지(五智) 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대장계대일여래의 삼매야형은 탑으로 표현됩니다.

오륜탑은 아래로부터 지륜(地輪), 수륜(水輪), 화륜(火輪), 풍륜(風

輪), 공륜(空輪)의 오대(五大)를 의미하는 사각, 원, 삼각, 반월, 보주(寶珠)를 쌓아올린 탑입니다.

좌우 불단의 문양

본 존 중앙의 좌우 불단에 새겨진 문양은 금강계 만다라의 4불과 4보살을 나타내는 문양으로 이를 '삼매야'라고 합니다. 양쪽 불단에 새겨진 문양은 금강계 만다라의 4불과 4보살입니다. 금강계의 불보살만을 모신 이유는 대장계 만다라에는 삼매야가 없고 금강계 만다라에만 삼매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강계의 9회 만다라 가운데 제2회 만다라에 해당하는 '삼매야회'에 바로 삼매야 문양이 있기 때문에 금강계 4불과 4보살의 문양, 삼매야형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삼매야는 삼마야 또는 삼매라고도 하며, 뜻은 '서원(誓願)', '맹서(盟誓)'를 의미합니다. 특히 진언밀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수행하던 때의 서원, 즉 그 '본서(本誓)'를 나타낸 말로 칼이나 탐, 보주, 구슬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표시들을 일컬어서 '삼매야형(三昧耶形)'이라고 합니다. 대개 불보살님들이 각기 상징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지물(持物)이라고 합니다. 지물만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보살과 그 지물을 함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좌우 불단에 새겨진 삼매야 문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불단의 좌우 측면에 새겨진 문양

먼저, 불단 중앙의 좌우 측면 양쪽에는 대장계와 금강계 양부만다라의 대일여래의 문양을 각각 모셨습니다. 대일여래 만큼은 대장계와 금강계 양부 만다라의 대일여래를 모두 모셨습니다. 그것은 대일여래가 양부 만다라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있는 것이 대장계 대일여래의 삼매야 문양이고, 왼쪽 측면에 있는 것이 금강계 대일여래의 삼매야 문양입니다. (총지사의 중앙불단 좌우측면의 문양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태장계 만다라



◎태장계 대일여래

로 놓힌 오고저(五鈷杵)를 올리고, 그 오고저 위에 탐을 올려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래의 지혜가 금강과 같아서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고저란 오고(五鈷)의 금강저를 가리킵니다. 금강저란 원래는 고대 인도에서 무기로 사용되었으나 밀교에 와서 견고하여 모든 것을 쳐부순다는 금강의 뜻으로서 번뇌를 파괴하는 보살심의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저입니다. 이 금강저는 바로 밀교수행의 상징으로써 중요한 법구(法具)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끝에 갈고리 하나씩 있는 것이 독고저(獨鈷杵)이고, 양 끝에 3개의 갈고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삼고저(三鈷杵)라 하며, 5개의 갈고리를 하고 있는 금강저를 오고저(五鈷杵)라 합니다.

금강계 대일여래의 진언을 금강계삼매야회에서는 '바자라 키자남 아'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금강의 지혜여! 아!'라는 뜻입니다.



① 금강바라밀보살

왼쪽 불단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문양은 금강 바라밀보살의 삼매야형입니다. 금강바라밀보살은 대일여래의 동쪽에 있는 보살로서 금강같은 범륜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보살입니다. 즉 금강바라밀보살은 아축불의 속성인 '보리심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방 아축불이 시현(示現)한 금강바라밀은 금강과 같은 '정보리심(淨菩提心)'의 활동을 체(體)로 하고 '일체중생의 대보리심(大菩提心)'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보살의 삼매야형은 연꽃 위에 오고저를 세워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오고저는 금강 같이 견고한 보리심을 상징하는데, 오고저가 세워져 있는 것은 보리(菩提)를 일으키는 마음 [발보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② 보바라밀보살

왼쪽 두 번째가 보바라밀보살의 삼매야형입니다. 보바라밀보살은 대일여래의 남쪽에 있는 보살로서 보생불의 속성인 '공덕취(功德趣)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남방 보생불의 시현(示現)인 보바라밀보살은 보리심의 활동으로 '무량의 복력(福力)'이 일어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보살의 삼매야형은 연화 위에 외씨와 같은 세 개의 보배구슬이 올려져 있다는 점에서 보생불의 삼매야와 동일하나, 연화 위에 보배상자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③ 법바라밀보살

왼쪽 세 번째가 법바라밀보살의 삼매야형입니다. 법바라밀보살은 대일여래의 서쪽에 있는 보살로서 '열반정정의 청정심(淸淨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법바라밀보살은 아미타불의 속성인 '청정지혜의 활동'과 '무한한 자비를 나누는 법열(法悅)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살의 삼매야형은 아미타불의 삼매야형과 마찬가지로 연꽃 위에 옆으로 놓힌 오고저를 올리고, 그 위에 금강독고저를 곁에 세우고, 독고저 위에는 활짝 핀 연꽃을 올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과 다른 점은 연화 위에 불경(佛經) 담는 상자(經櫃)를 얹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경계(經櫃)는 법(法)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법바라밀보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보배구슬은 마니보주로써 악한 병을 낫게 하고 독사(毒蛇)의 독을 해독하며, 탁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등, 일체의 재난소멸과 온갖 소원을 이루게 하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힘을 지닌다고 합니다. 독고저 위의 연꽃은 본성청정의 열반의 경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④ 업바라밀보살 [갈마바라밀보살]

왼쪽 네 번째가 업바라밀보살의 삼매야형입니다. 업바라밀보살은 갈마바라밀보살이라고도 하며, 대일여래의 북쪽에 있는 보살로서 '대정진(大精進)'을 일으키는 보살입니다. 즉 업바라밀보살은 북방 불공성취여래의 속성인 '변화·창조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보살입니다.

이 보살의 삼매야형은 갈마금강저로서 '무한한 활동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마는 대정진을 나타내며, 갈마바라밀은 바로 끊임없는 창조의 활동으로써 우주 대생명이 작변화(作變化)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맹정진을 계속하여 그 성취를 원만케 하는 묘용(妙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정(有情)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옹맹정진하는 모습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 갈마바라밀이며, 그 묘용을 사물로 상징화한 것이 갈마저입니다.

⑤ 아축불

아축불은 대일여래의 동쪽에 있는 부처님으로, '보리심(菩提心)'을 관장하며 그 보리심의 덕성(德性)을 지니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아축불은 '보리심이 금강과 같이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축불의 존명은 동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축불을 '부동불(不動佛)' 또는 '무동불(無動佛)', '무진에(無顛義)'라고도 합니다.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수행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처님입니다. 인간의 내외의 장애인 분노를 가라앉히고 동요됨이 없는 굳건한 '보리심'을 내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금강견고신 아축불'이라 합니다. 아축불의 삼매야형은 연화 위에 옆으로 놓힌 오고저가 있고, 그 오고저 위에는 다른 오고저를 세워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동요가 없는 존상'임을 나타내어 '견고한 보리심으로 번뇌의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놓힌 오고저는 중생들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유(本有)의 보리심을 나타냅니다.



⑥ 보생불

두 번째는 보생불의 삼매야입니다. 보생불은 대일여래의 남쪽에 있는 부처님으로, '능히 일체 중생의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시키는 부처님'입니다. 즉 '수행의 복덕'을 상징하는 부처님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복덕을 모아서 여래의 몸을 장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생여래를 '공덕장엄취신 보생불'이라 합니다. 이 보배장엄으로 중생의 원을 만족시키고 불타(佛陀)의 계위(階位)에 오르게끔 관정을 주기 때문에 '관정지불(灌頂智佛)'이라고도 합니다. 그 삼매야형은 연화 위에 외씨와 같은 세 개의 구슬이 모인 모양입니다. 그 의미는 '수행의 덕을 충족시키며, 그 복덕이 널리 모든 중생에게 미치도록 하는 작용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작용력이 여의보주의 구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여의보주의 구슬은 바로 의복, 감로, 음악, 보공진 등의 미묘한 것과 중생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⑦ 아미타불

세 번째는 아미타불의 삼매야입니다. 아미타불은 대일여래의 서쪽에 있는 부처님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와 의욕으로부터 구제하시는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의 존명은 영원한 목숨을 의미합니다. 이 부처님은 '한량없는 광명의 부처, 한량없는 생명의 부처이며,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무변한 '증보리심(證菩提心)'의 덕'을 나타내는 부처님으로, 자비지혜로써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일체중생의 구제를 염원하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수용지혜신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그 삼매야형은 연꽃 위에 옆으로 놓힌 오고저를 올리고, 그 위에 독고저를 올려 세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생사윤회의 인연과 번뇌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해탈, 본성청정의 열반을 증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⑧ 불공성취불

네 번째는 불공성취불의 삼매야입니다. 불공성취불은 대일여래의 북쪽에 있는 부처님으로, '중생교화의 사업을 능히 성취케 하는 부처님'입니다. 불공성취불의 존명(尊名)은 헛되지 않고 확실하게 부처의 작용력·활동력을 성취케 하는 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일체의 번뇌를 단멸하고 중생교화의 사업을 원만히 성취해서 헛됨이 없게 하는 '불공성취(不空成就)'의 묘용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작변화신 불공성취불'이라고 합니다. 불공성취불은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리하여 마음에 어떠한 공포도 없는 자유활동을 전개하는 부처님입니다. 그 삼매야형은 연꽃 위에 오고저를 옆으로 누워 올리고, 그 위에 갈마저(羯磨杵)를 올려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일체중생의 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놓힌 오고저에서 좌우의 오고(五鈷)는 부처와 중생이 본래 일체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